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0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19일(음력 7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 진관사서 "대한독립 만세"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8월 12일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 · 중국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멕시코 5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은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 등 독립운동 문화유산을 마주하며 선조들의 뜻을 되새겼다. 사진은 진관사 스님과 참가자들이 '진관사 태극기'를 앞에 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 글 · 사진=박지운 기자

후보등록 완료…총무원장 선거 본격화

8월 11~13일 후보등록 접수 진행
선관위, 추첨 통해 후보 기호 확정
1번 경우 · 2번 정념 · 3번 진우 스님
후보들, 종정 예방 후 본격 유세전
9월 3일 오후 1시 총무원장 선거

김내영 · 이현희 기자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8월 11일 당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진우·정념·경우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에 입후보 서류를 접수했다. 진우 스님 대리인으로는 중앙종회 의원 덕유 스님이, 정념 스님은 법흥사 주지 삼혜 스님이, 경우 스님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자공 스님이 참석했다. 대리인 스님들이 접수 시간 전에 도착함에 따라 기호는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대리인 포함)가 도착한 경우 즉석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경우 스님, 기호 2번은 정념 스님, 기호 3번은 진우 스님으로 배정됐다. 8월 13일 마감까지 추가적인 후보등록은 이뤄지지 않아 중앙선관위는 선거 후보를 경우·정념·진우 스님 3명으로 확정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순창 만일사·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호법국장·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선운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0년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7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자 스님들은 첫 행보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진우 스님은 8월 12일 오후 4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으며, 경우·정념 스님은 8월 14일 새벽 6시 20분 성파 스님을 예방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후보등록을 완료한 중앙선관위는 8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8월 19~21일에는 전국 교구본사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가 열리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총 321명이 선거에서 투표하게 된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진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5개 불교시민사회단체는 8월 10일 '공명선거모니터단'을 발족하고 선거인단 선출 참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보도 유감"

SBS, 8월 5 · 6일 연속 보도
조계종 "불교 예산만 검증"
"미흡한 부분은 점검 강화"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SBS가 보도한 템플스테이 및 종교문화시설 운영 관련 보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SBS 보도는 일부 사찰 사례만 부각해 템플스테이와 종교문화시설의 공익적 가치와 종합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여도와 문화관광 효과,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불교 관련 예산만 선택적으로 검증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SBS의 사전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종단의 설명이 실제 보도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거론된 사찰 카페의 경우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시설"이라고 바로잡고, 운영이 중단된 일부 시설은 안전 문제 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였음에도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단정한 것은 사찰과 문화체험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문제가 제기된 사찰들을 철저히 점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운영 현황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국민들께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업단은 신륵사와 반야사 등의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 신중일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8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9월 1일 오후 1시 대법륜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오는 9월 1일 개최한다.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 스님)는 8월 10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9월 1일 오후 1시 대법륜전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정념 스님의 사직에 따른 후임 선출을 위해 치러진다.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22년 6개월여간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나, 지난 7월 3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후보자 등록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8월 19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입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거주승 신고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구성원명부 열람 기간은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총무원장 후보자 인터뷰·주요 공약 4·5·6·7·8·9면

佛敎中興, '시작된 변화, 도약의 완성'

기호 3
진우스님

공의(公議)를 모으고,
공감(共感)하고,
공심(公心)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더 많이 사부대중과 공감하며,
더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로 실천하겠습니다.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 정착
비구니스님의 실질적인 권익향상
출가부터 열반까지 승려 복지 완성
불교문화 콘텐츠 다각화, 종단 재정 선순환 구조 정착
교구 본말사 역량 강화(지역사찰이 지역 사회문화 선도)
교육과 수행 환경 혁신
AI와 뉴미디어 포교 도입, 청년 포교 활성화
전통선에 기반한 선명상 대중화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 세계적 브랜드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스님 선거대책위원회

경우 스님 “신뢰의 종단 구현”

8월 10일, 선거 출마 기자회견
교구법 제정 ‘공동운영제’ 도입
비구니 참여로 평등 승가공동체
승가복지 강화·디지털 혁신 추진
“종교지도자, 도덕성 시비 가려야”

글=임은호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8월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발표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 스님이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사부대중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우 스님은 8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과 주요 종책을 공개했다. 스님은 먼저 “40여 년 수행자의 길과 종단 내 여러 소임 속에서 종단의 앞날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소임인가를 깊이 배워왔다”며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우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로 사회적 갈등과 전쟁·분쟁, 환경과 기아, 디지털 대전환, 청년층의 종교 이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종단은 결코 어제의 자리에 머물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 수행 가풍의 시대정신화 △교구 중심의 획기적 종단 운영시스템 도입 △디지털 혁신을 통한 AI시대 선도 △불교문화 르네상스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 △청년·세계화 △승가복지 강화 △국가와 사회를 잇는 상생의 길 등 8대 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경우 스님이 제시한 종단 운영의 핵심은 ‘합의와 소통’, ‘신뢰’ 그리고 ‘교구 중심제’다.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을 새로운 종단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구법’ 제정을 통한 교구자치제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포교·전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 실현이 핵심이다.

전통 수행 가풍의 현대화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경우 스님은 “간화선에 기반한 수행 가풍은 조계종의 정체성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라며 “모든 스님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 가풍을 국민의 정신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불교 전통문화와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불교 관련 예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종단 소유 유·무형 문화재를 민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확대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경우 스님은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전국비구니회와 상시 소통·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비구니스님들의 의견이 종책과 종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구와 비구니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원력으로 평가받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도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종단의 미래 경쟁력과 존립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행정·교육·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12대 종책공약에는 △수행지원기금 조성 △선원시설 현대화 △간화선 국제센터 설립 △수행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교구법 제정 △종단 통합전산망 구축 △AI 종책위원회와 불교GPT 개발 △AI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등이 담겼다.

승가복지 강화도 주요 과제다.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 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긴급구호 시스템 및 복지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승가를 지키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후보자 도덕성 문제에 대해 “종교지도자, 출가인들에게 도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의혹이 있다면 시비를 가리고 나가야 한다”며 “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경우 스님은 “외부에 비치기에는 안정과 화합 종단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혁 정신이 제자리걸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불교와 종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광장 회장 사퇴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신설 등이 불교광장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이날 제시한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공동체’ 구현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종단 안정과 화합 발전을 위해 회장 소임을 맡았지만 시각과 생각이 구성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소임을 놓은 상황에서 세세한 얘기는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월 6일 출마를 선언한 정념 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경우 스님 측 선거대책위원장 범해 스님, 선거총괄본부장 자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스님, 공감과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과 탄원 스님, 공감과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선운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 “교구와 함께 변화 견인”

8월 11일, 연임 도전 공식 선언
추대제·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편
승려 복지·교구 중심 종단 등 제시
“오직 불교·종단·종도 위해 헌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이 8월 11일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8월 11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고뇌했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때문”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가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임기에 대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원과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며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과 불교박람회 등 한국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불교는 시대를 따라가는 불교를 넘어 시대를 이끄는 불교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불교는 더욱 역동적인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자리를 지키거나 명예를 더하기 위해 다시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종책으로는 먼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권익과 종단 내 역할을 확대하고, 출가부터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부와 불교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기본수행비 지원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종단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불교문화 콘텐츠 다각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승려복지와 포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구 중심의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선명상 대중화, 승가교육과 수행환경 혁신을 통한 도제 양성, AI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포교·전법, 사찰숲과 문화유산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 확대, 남북불교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오직 불교와 종단, 종도와 중생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종회의원 53명 “진우 스님이 적임자”

8월 11일, 공식 지지 선언문 발표
“종단 혁신 위한 검증된 리더십”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진우 스님의 연임을 지지하는 중앙종회의원 53명이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진우 스님을 지지하는 종회의원들’은 8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중흥 이끌 진우스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보여준 성과와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53명은 전체 중앙종회의원의 약 65%에 해당한다.

이들은 “불교중흥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의 체질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어가려면 진우 스님의 검증된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세계 명상 '한자리'…글로벌 명상 만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8월 22~23일 서울 강남 세텍서
명상체험부스 · 세계부스 운영
9월엔 석학 모인 컨퍼런스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간화선부터 일본 묵조선, 미얀마 호흡명상, 러시아 정교회 이시하즘 등까지 다양한 세계의 명상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중 체험파트 행사인 '명상체험 부스&세계명상 부스'를 개최한다.

명상체험 부스에는 총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비롯해 걷기·몸 알아차림·마음챙김·명상상담·선명상 등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명상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한 생활선 수행법인 '주인공 관법'을 배울 수 있는 부스가 처음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현재 동국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청일 스님이 지도하는 '내 안의 주인공을 만나는 명상'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통해 자신에게 본래 갖춰진 불성인 '주인공'에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공부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로하모니 호흡명상 부스에서는 뇌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호흡과 심상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편안한 명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온한 금강경 사경 명상' 부스에서는 〈금강경〉 '사구게' 사경과 마음챙김을 접목해 집중명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통합치유 명상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젠링(Zenring), 거울, 사진, 아로마,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명상 기법을 만날 수 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명상 부스에는 각국의 다양한 명상 전통과 현대 명상 실천법을 소개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의 전통 명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마음돌봄 방법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명상을 통해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스에서는 한국의 간화선, 일본의 묵조선, 태국의 마음멈춤 명상, 미얀마의 호흡명상 등 불교 전통 명상수행부터 이슬람 수피 전통 수행인 튀르키에의 기억명상 '지크르', 러시아 동방정교회의 대표 관상 수행인 '이시하즘', 하와이 전통 챈트와 훌라가 어우러지는 춤 명상 수행법인 '훌라 카히코'를 만날 수 있다.

오프닝 행사는 8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순야타(공), 치유의 소리'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23일에도 △들숨날숨과 함께하는 명상음악(오전 12시) △일본 염불명상(오후 1시) △튀르키에 회전명상 세마(오후 2시) △하와이 카히코 훌라 세리머니(오후 3시) △티베트 명상(오후 4시) 등의 명상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는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8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현장 참여는 행사 당일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체험 파트와 더불어 학술·교육·문화 총 4개 분야에서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학술 파트의 '명상 콘퍼런스'는 9월 17일 9월 18일까지 이틀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 파트에서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루틴 콘텐츠'가 진행되며 문화 파트에서는 선명상 콘서트가 열린다. 선명상 콘서트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전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퓨전 공연과 현대적 명상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혜원 스님 원력 이어 정진"

8월 11일 9주기 다례재 봉행
안양본원서 대중 1000명 참석



한마음선원은 8월 11일 안양본원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혜원 스님 영단에 헌다하는 모습.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 9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정신과 유훈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8월 11일 안양본원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지원장 스님, 신현준 한마음선원 신도회장과 본원 및 지원 신도회장단,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혜원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이사장 혜수 스님의 헌향과 헌다를 시작으로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승단 헌화, 본원 및 지원 신도회장단 헌화, 입정, 상용영반, 생전 법문영상 상영, 선법합창단 음성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 대중은 한마음선원의 성장과 발전에 평생을 헌신했던 혜원 스님의 생전 모습을 돌아보며 스님이 남긴 수행과 포교의 뜻을 마음에 새겼다. 이날 상영된 영상에서는 혜원 스님이 대중에게 전했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엄한 가르침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행의 길로 이끄는 힘이 됐음을 되새겼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혜원 스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스님의 자애로움이 대중을 이끌고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강조했다.

혜수 스님은 "혜원 스님 법문을 보면, 대행 선사와 도량, 그리고 대중을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스님들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며 "큰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혜원 스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원력, 대중을 향한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한마음으로 수행하고 회향해 나가자"고 전했다.

1938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연자당 혜원 스님은 1981년 대행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7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를 맡아 수행과 포교, 도량 불사에 헌신했으며, 한마음선원이 대표적인 도심포교 거점도량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2012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7년 8월 21일 법랍 3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더프라미스, 베네수엘라서 구호 활동

7월 21일 심리지원단 파견해
사각지대 발굴 · 아동 정서 회복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8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현장 상황과 대응 성과,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진〉

더프라미스는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이재민 캠프에 국제재난 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 단원 2명을 파견했다. 이지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 취약한 아동들의 정서 회복에 주목했다. 대피소 생활로 배움과 놀이 공간을 잃은 아동을 위해 글로벌 NGO 이스라에이드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오가르밤비와 협력해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했다.

현지 활동 단체를 위한 지원도 진행했다. '돕는 이들을 돕다'를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나이켈 볼리바르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에 식재료를 조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워크숍도 기획했다.

더프라미스는 추가 구호 기금 확보 시 아동 돌봄을 최우선으로 2차 구호 팀을 파견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100-035-864047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이현희 기자

기자칼럼

불서 열풍, 힙함 넘어 본질로

미디어 콘텐츠가 출판 시장 변화를 빠르게 이끌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 여파로 원작 〈오디세이아〉가 8월 첫째 주 예스24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영화화된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상반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인기 드라마와 유튜버 도서 약진도 같은 맥락이다.

불교 서적에서도 유튜브 강의로 인기인 보만 스님의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이 12일 현재 종교 부문 2위,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은 13위를 기록 중이다. 〈229가지 자연의 맛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과 〈초역 부처의 말〉도 방송과 유튜브를 타고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힙불교'와 '텍스트힙' 트렌드와 함께 미디어를 통해 고조된 대중들의 관심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출판 기획력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힙불교를 향한 청년층의 관심이 곧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젊을수록 무종교인이 많았고 지난해 20대 종교인 비율은 4명 중 1명꼴(24%)에 불과했다.

신간 〈최애는 부처님〉을 펴낸 90년대생 유튜버 '비구니연습생' 계소영 작가도 12일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변 또래들 대부분이 무교라면서 "불교가 가벼운 힐링, 재미 위주로 소비되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그동안 청년들의 관심 밖이던 불교가 서서히 이들의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관심이 수행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미디어로 불교가 한층 가까워지는 시대, '힙함'으로 유입된 청년층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전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길 바란다. 또 불교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책과 청년들의 고민을 겨냥한 콘텐츠, 기존 명저들을 접하고 음미할 기회 역시 늘어나야 한다. 미디어의 빛을 보지 못한 불서들도 청년들의 책장 속에서 펼쳐져 불교의 지혜가 그들 삶의 나침반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배희정 편집국 기자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우스님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습니다



기호 1
경우스님

“변화와 소통으로 한국불교 대도약”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1번 경우 스님

“시대 맞는 종단 운영 · 리더십 시급”
수행 가풍 최우선…기금 조성 추진
교구자치 ·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공약
‘합의와 소통’ 원칙으로 종단 운영
“단임제 바람직…단일화 긍정 기대”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순창 만일사 · 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 · 호법국장 · 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선운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우 스님의 출마를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중앙과 교구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치며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총무원장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우 스님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변화’를 꼽았다.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세대에 불교적 가치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단 운영과 리더십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스님은 총무원에 집중된 종무행정을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은 대정부·대사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종단 운영을 위해 교구와의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와 참종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합의와 소통’을 원칙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0일 서울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진행됐다.

Q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불교는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 전 세계적인 탈종교화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세대에 불교적 가치와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종단은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며 관성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대도약과 퇴보의 갈림길 위에서 있는 상황에서 종단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Q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신도 수도 크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수행’과 ‘포교’라는 두 축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청정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청정 수행 가풍을 바탕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자승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전법합시다’라는 선언처럼 전법과 포교에 종단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그동안 총무원장의 역할은 종무행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은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은 대정부·대사회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단 내적으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종단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과 합의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Q 38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는?

첫째는 당연히 교구본사 중심제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교구중심제를 얘기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둘째는 종단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젊은 불자 양성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 대정부 관계에서 종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 사찰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종단이 취합해 정부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 수행지원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계종의 수승한 수행 가풍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수행지원기금’은 모든 스님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뒷받침입니다.

제가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고창 불교회관과 전주 포교당 불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심으로 살림을 공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단 역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수행지원기금 조성도 원만히 이뤄질 것입니다.

Q 교구자치 구현 방안은?

교구자치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가 실질적인 지역 수행·포교·전법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열리는 본사주지회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Q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공약은?

본사 주지로 일하며 비구니 스님들이 국장 소임을 맡고 전법위원회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종단 발전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선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참종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나아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Q AI시대 불교의 역할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종단의 미래 경쟁력과 존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류가 물질의 생산과 분배에 몰두하는 동안 정신적 빈곤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 효율을 좇는 시대에 불교적 가치는 인간의 정신적 허기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폭넓은 확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왔습니다. 종단은 이 같은 역량을 기반으로 불교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미래지향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행정·교육·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Q 불교광장 회장 소임을 맡았던 소회는?

불교계에서도 ‘정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저는 그동안 ‘출가수행자’라는 점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불교광장 회장 소임은 승가공동체의 발전과 화합,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극구 사양하다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불교광장이 본래 취지와 역할을 되찾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선거로 인한 갈등에 우려도 큰데.

선거 때마다 비방과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연임 과정에서 혼란이 컸던 만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임기를 5년으로 늘이거나 장기적인 종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Q 단일화 이유와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념 스님과는 ‘합의와 소통’에 바탕을 둔 종단 운영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어떤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대중과 함께하는 총무원장, 책임지는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4년 동안 공심으로 일하고 맡은 소임을 다하는 총무원장을 발원합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세력이나 힘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종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한국불교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대도약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새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구에 권한, 참종권 확대…'분권형 종단' 청사진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1번 경우 스님

- 교구법 제정 · 본사주지회의 격상
- 비구니 참여 '평등 승가공동체'
- 청년 전법으로 미래 기반 확충
- 수행지원 · 승려복지 강화 강조
- 관건은 공약 제도화…합의 필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경우 스님이 선운사 단기 출가학교 참가자에게 발우를 증정하고 있다.



선운사는 불교대학 개원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 군 장병 수계법회 개최 등 미래세대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모습.



전북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굴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건립 불사가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3월 29일 열린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모습.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1번 경우 스님이 내건 8대 운영 기조와 12대 종책공약은 크게 '교구 중심의 분권형 종단 운영' '평등한 승가공동체' '수행·전법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교구법 제정을 통한 교구자치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및 종무행정 참여 확대가 종단 운영체계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수행지원과 승가복지, 청년·대학생 전법, AI·디지털 종단 구축, K-불교문화와 국제포교, 대정부·대사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종단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우 스님의 종책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중앙과 교구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종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교구법 제정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개별 사업을 넘어 종단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제도적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38대 집행부가 중앙 중심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교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확대된 참여와 권한을 실제 종단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공약의 실행력을 가늠할 주요 관건이다.

'교구 살아야 종단 산다'

12대 종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단 도약의 초석, 교구 중심제 실현'이다. 교구법을 제정하고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교구 행정 디지털화, 교구별 발전기금 조성, 신도시 거점사찰 확대, 교구 인재양성센터 설립, 교구 포교전략 수립 지원, 교구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이 세부 과제로 담겼다.

8대 운영 기조에서도 '교구 중심의 획기적 종단운영시스템 도입'을 별도로 제시했다. 교구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교구가 종단 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우 스님은 출마선언 당시에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합의와 협력의 종단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부에 집중된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주적 교구운영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고 말사 주지 임명권 등을 교구로 이양하며 교구 재정 확충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제시했다. 교구를 단순한 지역 단위 조직이 아니라 수행·포교·전법을 주도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향이다.

교구 중심제의 또 다른 과제는 재정이다. 권한을 이양하면서 재정 기반이 따라오지 않으면 교구자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우 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교구의 자체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종책에 담았다.

'평등 승가공동체'…비구니 참여 확대

경우 스님 종책에서 교구 중심제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비구니 승가의 참여 확대다.

8대 운영 기조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공동체'를 별도로 제시하고, 12대 종책에서도 '수행과 전법의 주역, 당당한 비구니 승가'를 독립된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비구니 스님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종단 운영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을 확대하고 종무행정 참여를 늘리는 한편 전국비구니회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종단 내 비구니부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수행과 복지 측면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교육기관과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우 스님은 이 공약을 자신의 현장 경험과 연결한다. 선운사에서 본사 주요 소임에 비구니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면서 행정 능력과 기획력, 현장 대응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구니 승가 참여 확대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이라기보다 종단이 보유한 인적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도 읽힌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구니 승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참종권 확대가 실제 종단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참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 종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비구니 스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종무행정에서 어떤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행 지원 · 승가복지…'수행자 중심'

교구와 승가의 참여구조를 바꾸는 한편 수행자들이 수행과 전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종책이다.

수행지원기금 조성과 선원시설 현대화, 전국선원수좌회 지원 확대, 간화선 국제선센터 설립 등이 수행 분야의 주요 내용이다. 선원 안거 및 수행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수행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려복지 분야에서는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수행원과 수행연금제 확대, 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긴급구호 시스템, 복지통합플랫폼 등 비교적 폭넓은 지원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은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승가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행지원기금과 복지 확대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경우 스님은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단 재정 운영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젊은 세대를 잡아라…전법 무게 중심 이동

포교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핵심이다. 경우 스님은 출가자와 신도 감소, 신도 고령화를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다. 특히 기존 신도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젊은 신도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포교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12대 종책에는 청년대학생 전법단 확대, 동국대·대불련 연계 대학생 포교, 청년선원 조성,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청년 단기출가 활성화, MZ세대 맞춤형 불교콘텐츠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군포교 역시 중요한 축이다. 경우 스님은 직접 군부대와 훈련소를 찾아 수계식과 공연 등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에게 불교를 접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현상을 실제 신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른바 '힙불교'가 일시적인 문화현상에 그치지 않고 불교에 대한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려면 사찰과 종단이 적극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신행모델과 신도시 거점사찰, 도심 전법·명상센터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포교의 무대를 사찰 안에만 두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 불교박람회 전국 확대, 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불교 웹툰·영상 제작, 청년 불교예술인 장학제도 등도 문화 분야에서 주요 종책으로 제시됐다.

한국불교가 가진 수행과 문화의 자산을 전통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콘텐츠화해 국내외 대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접근이다. 특히 명상과 템플스테이는 이미 한국불교가 갖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종단 구축에서는 AI를 종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불교를 접하는 새로운 창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사회 활동 강화…종단의 공적 역할 확대

대정부·대사회 분야에서는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제도 개선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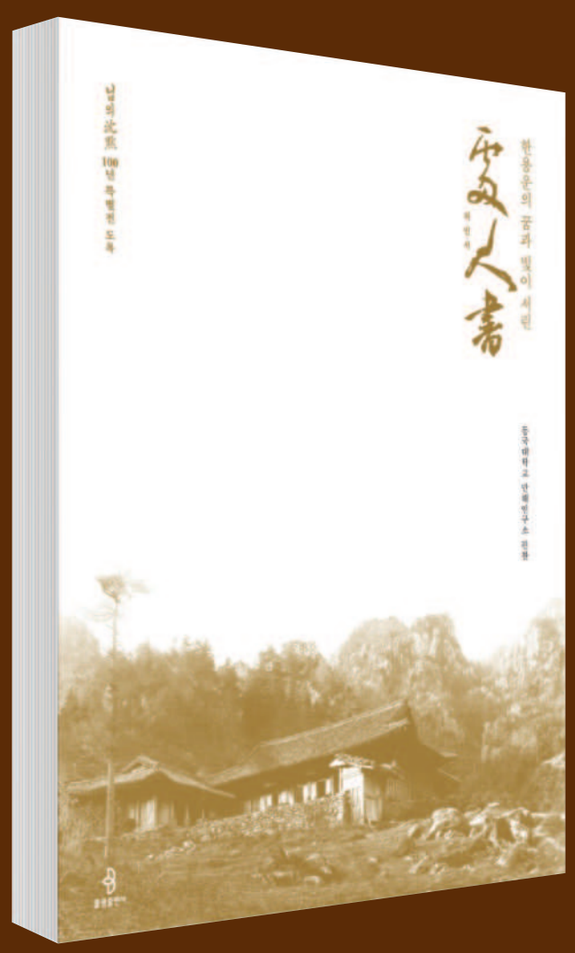
전통사찰 핵심보존지 종교용지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확대, 재난 피해 예방시설 구축, 국공유지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개별 사찰이 각 지자체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단 차원의 대정부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사찰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중앙에서 취합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총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재난구호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우 스님의 8대 운영 기조와 12대 종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숫자보다 종단 운영방식의 변화에 있다. 교구 중심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인력·책임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역시 구체적인 제도화와 종단 구성원의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변화가 실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100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만해(萬海)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님은 갔습니다' 뒤에 숨겨진
만해 한용운의 남다른 면모들,
친필 서간부터 유묵까지…
1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해의 모든 것'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

『님의 침묵』 간행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장소·사람·책으로 재조립한 '만해정신'의 결정판

이 책은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장소와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스님이 읽고 쓰고 편찬한 글을 토대로 완성한 시각적 평전이자
'한용운'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문학적 아카이브다.

"조선불교 유신의 책임이 천운이나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 유신론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는 동시에 이를 승려 형제들에게 알린다."
_『조선불교유신론』「서론」 중에서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
_「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입전수수로 새로운 화엄 세상 구현”

<入鄽垂手>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2번 정념 스님

“권한은 교구로, 불교는 국민 곁으로”
“대전환 시대 이끌 새 리더십 필요”
단임제 제도화 · 분권형 종단 우선 추진
참종권 단계적 확대 · 환경 공약도 제시
단일화 여부 “종도 뜻 최대한 모아야”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7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7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사진=박지운 기자

정념 스님을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배경과 종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념 스님은 그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운영, 자연명상마을 옴뷔 개원,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오대산에서 추진해 온 성과를 종단으로 회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마 선언 첫 일성은 ‘단임 선언’이다. 총무원장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종단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총무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협치하는 단임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념 스님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문명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화엄사상과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단 운영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위임하고, 총무원은 종단 대표성과 정체성을 구현하며 대정부·대사회·국제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종도들의 컨센서스(합의)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념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1일 서울 조계사 인근 선거운동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Q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종단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중에서 새로운 종책을 실행하고 고민하면서 시대를 통찰해 왔던 제 나름의 관점에서 보면 종단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희망을 갖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마의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Q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불교는 전 분야에 걸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가자 급감과 청년 불자의 이탈로 지역 사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중앙집중적 구조와 닫힌 의사결정은 사회적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행으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재정 투명화와 공정한 인사, 대중공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Q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첫째는 청정한 수행력입니다. 수행으로 세운 신뢰가 존경의 바탕이며, 교육·인사·행정의 기준도 학연과 문중이 아닌 수행과 원력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청과 소통입니다. 총무원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공의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셋째는 회향의 리더십입니다. 권한은 교구와 대중에 내려놓고, 재정은 낱낱이 공개하며,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무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미래를 여는 리더십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새 문명을 열어가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Q ‘단임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임제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큰 위기와 분열은 대부분 권력을 연장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임을 위한 정치가 인사와 재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건전한 정치적 합의와 비판 기능은 약화됩니다.

단임은 오직 저 자신의 결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개혁이기에, 서약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단임제를 통해 종단의 정치 구조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총무원장의 임기를 오로지 종단을 위한 헌신적인 직무의 기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Q 교구자치제의 방향은.

그간 한국불교의 포교와 전법은 단위 사찰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은 종단을 대표해 대정부·대사회·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무원 자체가 권력기관화 해 전체를 통제하거나 중앙이 지방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권형 종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사에서는 말사 주지 임명권을 전면 교구로 이양하겠습니다. 재정에서는 중앙예산의 30%를 교구 핵심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미자립 사찰 지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교구장협의회의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교구별 특성에 맞는 종무·포교·복지 계획 수립권을 보장하겠습니다.

Q 참종권 확대 방안은?

참종권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대중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것은 곧 애종심을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인단 구성의 다양화와 인원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종도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선거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인단을 장악하는 문화를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선제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부대중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Q 환경 분야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기후위기는 문명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입니다. 뭇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은 불교의 본분이며, 오대산에서 생태·환경 불사를 실행해 온 경험이 있기에 말이 아니라 검증된 실천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에코 다르마 운동을 전국화하고, 탄소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불교적 사유 속에서 환경과 기후위기, 생태문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불교가 쉼 없이 주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단일화 이유와 가능성은?

단일화는 종단 운영 방식이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는 결국 종도들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종도들의 컨센서스(합의)를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때 결집하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쉼 없이 만나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후보로 좁혀 가며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종도들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는 원장이 돼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불교가 이 시대의 성찰적 기능과 구세대비 정신을 잘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종단의 제도와 문화, 수행 정신을 통해 불교가 시대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의 초석을 놓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기는 힘듭니다. 오늘날 변화는 엄청나게 깊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고를 잘 넘어서면서 함께 전환해 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교단으로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풀어내고, 그 전환의 초석을 놓은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넘어 종단의 미래를 선택하는 종책 선거가 돼야 합니다. 권한은 교구로, 불교는 국민 곁으로. 그 약속을 단임의 서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산문 밖의 길이 무겁고 멀지라도 사부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고 대중과 함께 결정하는 종단, 국민 곁에서 희망을 전하는 불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종도와 불자 여러분의 동행을 간절히 청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분권·전환으로 종단 패러다임 바꾼다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2번 정념 스님

- 교구자치 · 단임제로 참종권 확대
- AI 윤리선언 등 '문명 전환' 선도
- 全 생애 승려복지로 공동체 구현
- 문화유산 정책 '미래 자산화' 방점
- 출가 천명 프로젝트로 출가자 확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6월 19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정념 스님이 이광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년 미국 우든피쉬재단이 참여한 출가학교에서 정념 스님이 외국인 학생에게 삭발을 해주고 있다.



2025년 4월 30일 열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관 개관식에서 정념 스님과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내놓은 종책 공약의 출발점은 '위기'다. 지난 20년 사이 연간 출가자는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급감했고, 청년·청소년 불자는 전체 불자의 4%로 축소됐다.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은 지역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종단 신뢰도 역시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념 스님은 '분권'과 '전환'이 중심된 종책 공약을 종단 운영 6대 원칙과 3대 전략 개요를 통해 제시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 단임제와 선거인단 확대로 종단 정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대전환,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 불교문화유산의 디지털·세계화를 결합했다.

"중앙은 지원 · 보완"…교구자치 법제화

정념 스님이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교구자치'다. 그만큼 '교구자치'는 정념 스님의 종책 공약에서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이 가장 뚜렷하다.

정념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무원 자체가 너무 권력기관이 돼 전체를 통제하려 하거나 중앙이 지방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중앙종무기관은 종단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정부·대사회·국제 역할과 교육 방향을 맡되, 지역 종무는 교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지역 종무는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보완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구자치위원회와 교구종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교구가 자율적 사법(寺法)을 제정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게 정념 스님의 구상이다. 말사 주지 임명권은 교구본사로 넘기되 교구종회 심의와 대중공의 검증을 의무화해 교구 내부의 권력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분권도 병행한다. 중앙 예산 30%를 포교 기반에 배정하고 우량 교구 분담금 일부를 취약 교구의 특화사업과 스님 기본소득·노후 의료비에 투입하는 상생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나아가 2026년 하반기 교구분권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7년 상반기 교구법 제정과 주지 임명권 이관을 마친다는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단임으로 재선 폐단 끊겠다

정념 스님이 공약한 '단임제'와 '참종권 확대'는 종단 정치 개혁의 두 축이다. 총무원장의 재선 유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종도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부터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단임제를 종헌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이 단임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연임제의 폐단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임을 추진하는 총무원장이 교구본사나 여타 정치 세력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단임제가 되면 총무원장이 재임하기 위해 교구본사나 여타 정치 세력을 특별히 관리하거나 정치 질서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적어진다"고 강조했다.

참종권에 대해서는 "대중의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곧 애종심을 발현시키는 일"이라며 선거인단 확대와 구성 다양화를 제안했다. 현행 소수 간선제가 금권선거와 매표, 일반 종도의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즉각적인 전면 직선제보다는 확대 간선제, 산중총회 참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도 전체의 참여 등 여러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다.

비구니 참종권도 이 같은 틀 안에서 다뤘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인터뷰에서 "산중총회 대중이 그대로 다 참여하면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I는 기술 아닌 '문명 전환'

AI 발달로 인한 대전환은 정념 스님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자 종단 미래종책의 중심이다. 정념 스님은 인터뷰에서 "AI시대의 쓰나미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문명 전환이다. 사유 방식부터 판단의 틀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조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회를 양단화·극단화할 수 있는 만큼 화엄과 연기의 관계적 사유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정념 스님의 AI 관련 종책 공약은 '종단 전환'에 방점을 두고 윤리·포교·행정·교육을 아우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자비와 정견에 기초한 '불교 AI 윤리선언' 제정이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선언의 핵심 원칙은 자비와 정견에 기반한 인간 존엄, 생명 존중, 기술의 윤리적 활용"이라며 "선언 제정은 교계·학계·과학기술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공사의 공론을 거쳐 종단 명의로 선포하겠다"고 전했다.

포교적 측면에서는 팔만대장경과 고승어록을 기반으로 한 AI 대화형 콘텐츠 개발하고, 다국어 명상 어플 무상 보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시대 마음 치유의 거점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를 교구본사별 명상 거점으로 확산하겠다는 것도 주요한 AI 종책 공약으로 꼽힌다.

종무행정에는 AI 네이티브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토론방'을 열어 1만3000여 스님과 재가불자가 종단 현안을 상시 논의할 것도 공약했다.

'화쟁토론방'에 대해 정념 스님은 "AI가 의제 정리와 쟁점 요약을 지원하고, 종단 현안을 상시 토론에 부쳐 부처님 당시 대중공사의 전통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이 '화쟁토론방'의 골자"라며 "플랫폼에서 모인 공의는 총무원 각 부·실의 종책 수립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처리 결과를 다시 공개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가 문턱 낮추고 입적까지 책임

정념 스님의 승려복지와 출가 종책 공약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인다. 출가자 모집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의료·주거·노후의 불안을 함께 해결해야 출가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정념 스님은 '출가 천명 프로젝트' 5개년 계획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연간 출가자를 200명대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을 현대화해 출가 교육의 실효성과 매력을 높이고, 늦깎이·만학 출가의 연령·절차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단기출가학교는 전국 교구 단위로 일원화하고 종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활용·명상지도·사찰세무는 승가교육 필수 교과로 편성한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승려복지 공약은 '출가에서 입적까지'를 원칙으로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수행·노후 거점원과 요양시설 건립, 종단이 먼저 건강과 주거를 살피는 능동형 돌봄을 제시했다. 교구 상생기금을 기본소득과 노후 의료비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불교문화, 미래 자산으로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 종책 공약은 '미래 자산화'에 방점을 뒀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와 현대 콘텐츠로 전환해 국민과 세계가 향유하는 공공재로 회향하겠다는 게 정념 스님의 구상이다. 이는 정념 스님의 출마선언문에 담긴 "사찰의 담장을 넘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불교로 회향하겠다"는 약속과도 궤를 함께 한다. 종단의 유산을 내부에 가두지 않고 사회의 치유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주요 공약으로 불교 문화예술 창작기금 신설과 영화·뮤지컬·웹툰 창작자 지원, 성보박물관 소장품과 팔만대장경의 3D 모델링·오픈소스 개방이 담겼다. K-불교 대표 불서 10권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국사찰음식전승원을 건립해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북한 전통사찰 59개소의 역사 고증 자료 발간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념 스님의 종책 공약은 인드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단임제로 재선 중심 정치를 줄이고, 참종권 확대로 종도의 대표성을 높이며, 교구자치로 중앙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다. AI는 이를 연결하는 참여·행정 기반이 되고 승가복지와 출가정책은 종단의 인적 토대를 복원한다.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은 사회와 세계로 회향하는 통로가 된다. 교구와 사부대중이 서로를 받치며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종단'으로의 전환이 정념 스님이 그려내려 하는 '새로운 화엄' 이다.

기호 2 번 | 정념스님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

AI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제 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사부대중께 약속합니다.

단임 실천
종헌의 명문화
임기 4년 전력투구

교구 자치
말사 주지 임명권 이관
교구 자치법 제정

승가 복지
출가에서 입적까지
찾아가는 적극 복지

정념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시작된 변화…미래 100년 완성”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

“불교 호감 · 선명상 흐름 열매 맺어야”
완전복지 실현 위해 기본수행비 지급
지역사찰 활성화 · 교구중심 종단 운영
“추대부터 직선제까지 폭넓게 논의”
‘비공개 출마 선언’엔 “메시지 집중”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박지운 기자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을 이끌어 왔다. 재임 기간 선명상 보급과 불교박람회,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으로 이른바 ‘힙한 불교’ 흐름을 주도했다.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 도전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진우 스님은 연임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긴 고민을 마치게 한 것은 원로 스님들의 말씀이었다. “한국불교가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원력을 내야 한다”는 당부였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에 대해선 승가의 전통적 합의 방식인 ‘갈마’를 강조했다. 8월 11일 이뤄진 출마 선언에 대해선 종단 질서와 위상을 무너뜨리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1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진행됐다.

Q 연임 도전을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것은 종도들의 열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높아지고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로 이러한 성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종단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진일보해야 할 때입니다.

원로 스님들께서도 “지금 한국불교는 열매를 맺기 전 꽃이 피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충실히 맺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Q 37대 집행부를 평가한다면.

종단 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불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성과라 자부합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정부와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임기 중 경북 산불과 청사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고, 자승 스님과 만당 스님의 입적이라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단 안팎으로 뜻깊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승가복지입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완전복지를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 ‘기본수행비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수행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Q 38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는?

지역사찰 활성화입니다. 지역사찰 중심 제도는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현재 교구본사는 지역별 당해 관내 종무를 통리하는 별도의 종무기관입니다.

총무원이 교구 본·말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불사·수행·포교 등에 필요한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본·말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8대 집행부에서는 각종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본·말사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교구자치와 참종권 확대 방안.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과감히 이양해 본사가 지역사회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Q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와 계승 방안은?

선명상 종책의 핵심은 ‘간화선 참선 수행의 대중화’입니다.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대중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로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종지와 종풍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단은 다양한 포교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선명상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불교를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선명상은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8대 총무원장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명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화선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지도 법사를 양성해 더 많은 국민이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화해 인류 정신문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AI시대 한국불교의 역할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간성 상실과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편리한 문명이라 해도 불제자들이 몸소 체득한 수행의 지혜와 자비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종단이 ‘로봇 스님’ 수계식을 봉행한 것은 AI가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도반일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에 따라 활용돼야 하고,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역시 지혜와 자비라는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간단한 교리 분석과 번역, 행정 보조 같은 형식적 기능에는 AI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불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현상에 끄달려 시시비비하기보다 AI 역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여실히 알아야 합니다.

Q 비공개 출마 선언의 의미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주변의 걱정과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어떤 종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Q 선거로 인한 갈등에 우려도 큰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비판은 수행공동체인 승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단 내 종법과 절차가 있음에도 네거티브를 일삼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며 종단의 위계와 위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도 또 다른 종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에는 오랜 갈마의 전통이 있습니다. 갈마 전통에 따라 수행자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앞으로 4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동안 여러 종단 소임을 맡아오면서 제가 드러나거나 부각되기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원장 재임하는 동안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선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공의·공감·공심’으로 불교 도약 이끈다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3번 진우 스님

- 승려복지 확대로 수행 기반 조성
-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 재정 확보
- 정신문명 이끌 선명상 세계화 박차
- 청년 맞춤 체험형 포교 개발 · 운영
- 분담금 감면으로 교구 자치 지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진우 스님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사진은 2025년 6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에서 참가자와 악수하는 모습.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명상지도자들이 5분 선명상을 하는 모습.



진우 스님은 지난해 4월 하동 쌍계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 참석해 참가자들의 인연 찾기를 응원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공의·공감·공심’을 바탕으로 차기 종단 운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행자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단 재정을 안정시키고, 선명상과 K-불교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법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종단과 교구가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도제 양성과 대사회 활동까지 종단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진우 스님이 제시한 차기 종단 운영의 방향은 크게 ‘수행 기반 강화’, ‘불교의 대중화·세계화’, ‘종단 운영의 분권화’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기본수행비와 승려 완전복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 방안은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수행비로 안정적 수행 환경 조성

진우 스님은 전 종도를 대상으로 기본수행비를 지원하고, 출가부터 열반까지 교육·주거·의료·요양을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를 추진한다. 기본적인 생활과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종단이 보다 폭넓게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행자가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수행과 종무, 전법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기반이 마련되면 출가자 감소로 인한 승가의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수행과 교육, 포교와 전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종단이 수행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수행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진우 스님이 기본수행비 지급과 함께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사업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종단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와 불교사업을 확대하고 불교문화 콘텐츠를 다각화해 수익 창출, 종단 재정 안정, 기본수행비와 승려복지 확대, 수행·전법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전통문화 굿즈의 생산·유통·판매, 불교 콘텐츠의 유료 상품화, 유휴자원 활용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선명상, ‘K-마음운동’으로 발전

진우 스님은 그간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대중화에 힘써온 ‘선명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적 ‘마음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앞서 4년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선명상을 알리고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K-선명상’과 ‘K-마음운동’으로 발전시켜 한국불교의 정신문명을 세계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 마음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돌보고 불교의 수행 전통이 가진 정신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인다.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해 일반 국민도 쉽고 친근하게 간화선의 진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운영해 선명상의 효과와 보급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선명상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기반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선명상 전문가와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선명상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선명상 담론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폭넓은 전법으로 불교 접점 확대

‘힙한 불교’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전법의 접점을 넓힌다. 특히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포교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AI·뉴미디어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전법 방식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나는 절로’, ‘청년밤心’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별 군포교 지원사찰을 지정해 지역과 군부대의 전법 기반도 강화한다.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에 맞춰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인 신행과 불자화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AI와 SNS 등 뉴미디어도 적극 활용한다. 청년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AI·뉴미디어 포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불교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불교를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포교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전법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불교문화 역시 전법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교와 만나는 계기로 잇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컬처 지원 확대 △연등회 세계적 문화축제 위상 확보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 △불교박람회 규모 및 개최 지역 확대 △불교문화진흥 전승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교구 권한 이양으로 함께하는 ‘종단’

진우 스님은 종단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교구가 지역 포교와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중앙은 정책과 지원에 집중하고, 교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법과 문화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중앙과 교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우수 종무원을 선발해 교구본사에 파견하는 종무원 순환근무제도 도입해 중앙과 교구 간 연계도 강화한다.

교구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한다. 중앙분담금을 점진적으로 감면해 교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무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특히 교구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화도량’ 지정이 눈에 띈다. 각 사찰과 교구가 가진 자원과 역량에 맞춰 불교문화 전승 중심 도량과 청년불교 상징 도량 등을 지정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그 성과를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방식을 통해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종단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선거제도 개선 · 사회적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종단의 제도 개선과 승가의 미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종책도 제시됐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종무행정 참여 확대에 힘을 쏟는다.

체계적인 승가 도제 양성과 교육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 한국불교연구소를 설립하고 온라인 승려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본사별 단기출가학교 운영을 지원해 출가자의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대사회 활동에서는 일회성 자비나눔을 자립형 자비나눔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넓힌다.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진력한다. 전통사찰 경내지와 건축물의 종교목적 활용 합법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 보완, 재난 유형별 방재 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지원 및 문화유산 유지보수비 자부담 감면, 사찰림 공익 가치 실현 등을 통해 사찰이 지닌 문화·사회적 기능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직접 이끌며 선명상과 불교문화 등을 통해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분명한 강점이다. 그러나 38대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종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임기의 성과를 넘어 종단이 당면한 과제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명나눔본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 우즈베키스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나눔으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고, 희망 인연을 심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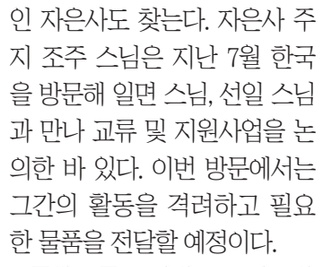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⑦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모연 권선문

나눔으로 국경 넘고 아리랑으로 마음 잇는다

9월 16~20일, 우즈베키스탄서 인도적 지원 · 문화교류

치료비 · 장애아동 용품 지원
고려인 만나 한국 전통 공연



지난 7월 불암사서 만난 조주 스님, 일면 스님, 선일 스님(왼쪽부터).

9월 우즈베키스탄서 인도적 지원
고려인 동포에 따뜻한 고국의 마음
취약계층에 치료비 · 생활용품 전달
"나눔으로 인연 잇고 희망 심는다"

자비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고통까지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천이 되고 실천이 모이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국제구호와 나눔의 길에 마음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곳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에게 낯선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고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굴곡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향의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이름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세대가 바뀌었어도 한 마디의 우리말과 한 소절의 노래, 익숙한 음식과 춤 한 자락이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즈베키스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단순한 해외 지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가는 마음, 멀리 있어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 당신의 삶과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후원금과 물품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치료를 돕고 한 아이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한 가정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후원이 한 번의 지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지 이웃들과 신뢰를 쌓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만나고,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쌓인 인연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문화'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다른 역사를 살아왔어도 아름다운 춤을 함께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아리랑을 통해 고려인 어르신들에게는 고향의 기억을 되살리는 따뜻한 시간이,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나눔이 삶을 살피는 일이라면 문화는 마음을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인 베풂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보다 오늘은 내가 손을 내밀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은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생활의 버팀목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자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고, 열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수많은 이들의 원력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역시 그러한 인연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신 분들, 이름 없이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생명나눔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인연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아이에게 희망을 주며 한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길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나눔이 한 번의 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되도록, 우리의 자비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즈베키스탄의 땅에 뿌려져 희망의 싹을 틔우고 언젠가 다시 큰 나무가 돼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에 원력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발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성껏 전해지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후원 문의 02-734-8059
후원계좌 농협 053-01-271485

2024년부터 국제구호에 힘을 쏟아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한다. 물품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해외구호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전하고 고려인 동포들과 만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한다. 나눔과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가기 위한 여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 우즈베키스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 혜성 스님, 선일 스님 등 스님들과 마하무용단 등 약 25명이 참여한다. 방문단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국가사회보호청(NASP)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사회복지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고려인 요양시설 등을 찾아 지원 활동을 펼친다. 또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현지 시민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힌다. 나눔과 문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함께 엮어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이다.

9월 17일에는 국가사회보호청을 찾아 사회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약 7000달러 규모의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2023년 설립된 국가사회보호청은 장애인·독거노인·보호아동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9월 18일에는 장애아동재활센터와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의약품·의료용품·생필품·아동 속옷과 의류·학용품 등을 전달한다. 현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실제 사용될 물품을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10년 설립된 아리랑요양원을 찾아 고려인 어르신들을 만난다. 1937년 강제 이주를 겪은 고려인들이 낯선 땅에서 이어온 언어와 문화, 삶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방문단은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다. 마하무용단의 한국 전통무용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방문단은 조계종 해외 사찰인 자은사도 찾는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일면 스님, 선일 스님과 만나 교류 및 지원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교류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다. 마하무용단은 타슈켄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광장이나 문화공간에서 태극부채를 활용한 퓨전국악 '아리랑'과 전통무용, 궁중무용, 창작무용 등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이번 프로젝트는 물질적 지원을 전하는 동시에 그 사회와 직접 만나고 문화를 나누며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라는 매개가 더해지면 단순한 해외봉사를 넘어선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⑪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법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직지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조계종 제16 · 17 · 18대 중앙종회의원, 해웅사 ·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23년 11월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성남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진=박지운 기자**

"호국불교 넘어 마음안보 책임지는 교구로"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군(軍)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포교 현장 가운데 하나다. 20대 청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삶과 국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기인 만큼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전국 380여 곳 군법당과 130여 명의 군승을 중심으로 장병들의 신행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지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구다.

2023년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법원 스님은 해군 군승 출신으로, 군포교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군종교구의 비전과 군불교의 미래를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8월 4일 서울 원광사에서 교구장 법원 스님을 만났다.

Q 3년 가까이 군종교구를 이끌어 오신 소회를 들려 주십시오.

30년 전 군승으로 임관해 군종장교 생활을 했고, 이후 종단에서 여러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게 돼 그간의 원력과 공부를 회향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시절 군 경험이 30년 후배인 군승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올 때 은사 스님께서 "군승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후원자와 지원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생이자 후배, 상좌처럼 생각하며 잘못한 이는 보듬고 잘한 이는 격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징계와 민원 등으로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Q 군종교구는 일반 교구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군종교구는 대한민국 군 안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군 병력은 40만명 수준으로 줄고 있고, 많은 분야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첨단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성과 올바른 신념을 지닌 군인입니다.

결국 인성교육과 정신교육이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돌보고 가치관을 세우는 군종병과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Q 급변하는 군 환경에서 군승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와 세대에 맞춰 전법의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회복탄력성 교육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인간성을 회복하며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휘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군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군 조직과 병영문화 변화에 맞춘 새로운 포교 전략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강요보다 공감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도 법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상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이 요구하는 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 교육을 불교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지난해 군종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군은 여전히 '포교의 황금어장'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처음 종교를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다만 전법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들 처음 불교 만나는 포교 場
380곳 군법당 · 130여 명 군승 활약
군 첨단화될수록 '마음돌봄' 중요
명상 · 상담으로 회복탄력성 높여야
호국영령 위령대재 국가 차원에서
군종교구법, 현실 맞게 개정 필요

지금까지는 병사 중심의 포교였다면 앞으로는 간부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직업군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군 조직을 이끌 간부들을 불자로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최근 불자 장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자 장성의 중요성과 군종교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병들에게 좋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휘관들의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100명 안팎의 불자 장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 신행뿐 아니라 병영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종교구는 국군불교총신도회와 국군준부사관불자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두 차례 이상 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지휘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종단 예산과 여러 사찰의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해외파병부대를 방문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외파병부대 방문은 제4대 교구장 혜자 스님 이후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파병 장병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청해부대에서는 수계를 위해 장병들이 매일 108배를 하는 모습을 봤고, UAE 아부다비에서는 사찰 하나 없는 환경에서도 가정집에 모여 법회를 이어가는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군종교구 차원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Q 6월 호국의 달에 봉행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의 국가 행사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해 행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종단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며 대표적인 호국불교 행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직 장병 유가족들도 초청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호국영령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도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여 국가 차원의 대표 추모행사로 자리 잡는다면 위령대재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군승 수급과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가자 감소는 군승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복무와 재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험 있는 군승들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여 년 전에 제정된 '군종특별교구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 출범 당시에는 견제를 위해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구가 안정화된 지금은 군법사 보직 배치 때마다 상임위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사문화된 법을 개정하고 교구장 선출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안정적인 교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 군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종병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현재 130여 명의 군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활동하며 380여 개 군법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곳은 지역 사찰과 포교사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종특별교구가 장병들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군승 5명이 임관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올해 1~2월 남수단과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해외파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6월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행한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숙원사업이었던 계룡대 홍제사 건립불사가 올해 4월 마침내 마무리되며 호국불교의 새로운 거점이 탄생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8월 4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운 기자**

“내 안의 위대한 주인공을 만나다”

8월 6~9일, 부산불교박람회
한마음선원 부산, 마음 치유
‘마음굴림’ 부스, 1:1 상담 진행
고민 카드로 MZ세대 눈높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마음굴림’ 부스를 진행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밝은 미소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즘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진행하는 선생님이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터졌어요.”

8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 과거 어르신들의 정적인 종교 행사로 여겨졌던 불교박람회가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힙(Hip)한 마음 치유의 장’으로 탈바꿈한 가운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운영한 ‘마음굴림’ 체험 부스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며 호응을 얻고 있다.

“몸 · 감정 · 관계의 번뇌를 굴리다”

‘마음굴림’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핵심 가르침인 ‘주인공(내 안의 진실한 근본)’에 번뇌와 아픔을 맡겨 쉬게 하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마음공부법이다. 부스는 약 15분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4단계 맞춤형 코스로 기획됐다.

방문객들은 안내존에서 ‘내 마음의 위대함’을 주제로 한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마음의 근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체험존으로 이동해 현재 자신의 내면을 가장 괴롭히는 주제인 ‘몸·감정·관계’ 카드 중 하나를 선택했다. 마치 타로카드처럼 자신의 고민을 투영한 카드를 고른 방문객들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대행 스님 법문을 바탕으로 친근하게 제작한 쇼츠(Shorts)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핵심은 세 번째 단계인 ‘함께 나누기’이다. 영상을 시청한 후, 마음굴림 코치들과 1:1로 마주 앉아 10분간 내면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깊은 대화의 시간이 주어졌다. 체험을 모두 마친 방문객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안의 위대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는 ‘주인공 단주(염주)’가 선물로 전달됐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한 주인이 있다”

마음굴림 부스 곳곳에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입시 중압감에 짓눌려 부스를 찾은 한 고3 수험생 김진서(가명) 학생은 마음굴림 선생님의 깊은 공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학생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진짜 내 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시험장에 내 안의 ‘주인공’을 먼저 보내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조언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미소를 되찾았다.

특히 이번 ‘마음굴림’ 부스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한 봉사자들의 내적 성장에도 자양분이 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아리회 소속 장양경 보살은 “박람회 참가 1회 차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불교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3회 차를 맞은 올해는 방문객은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스스로도 지혜로워지고 단단해지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스의 마스코트인 비니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도 방문객들에게 주인공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청년과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온전히 쉬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내 마음의 위대함’과 ‘주인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혜벽 스님은 “우리는 모두 소를 타고 있다는 말처럼 내 안에 위대한 에너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 마음을 끌어 쓰거나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한다”며 “하지만 그 위대한 마음을 ‘주인공’이라 이름 짓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갈 때 그 에너지가 온전히 전해지고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고 고민 덩어리인 내 마음을, 내 안의 근본이 되는 큰 한마음에 굴려서 지혜롭고 밝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굴림’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전했다.

부산 동명불원, ‘문화치유명상학교’ 개원

9월 6일, 동명불원서 개원
시민 위한 마음힐링의 도량



동명불원은 오는 9월부터 ‘문화명상치유학교’를 개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도심 포교당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마가 스님, 이하 동명불원)이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선보인다.

동명불원은 8월 12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개강하는 ‘문화치유명상학교’의 세부 운영 계획과 사찰 활성화를 위한 8대 실천 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치유명상학교’는 불교의 전통 수행과 현대적 심리 치유 및 명상을 조화롭게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종교적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자율보시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각 과목별 30명이며 접수는 동명불원 종무소 방문 또는 전화(051-626-4337)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강좌로는 △선명상(원장 마가 스님, 월요일 오후 2시·저녁 7시) △경전학교(이욱태 이사, 화요일 저녁 7시·금요일 오후 2시) △꽃꽂이 마음 꽃피우기(목요일 오전 10시) △만다라 치유명상(수요일 오후 2시) △염불 노래명상(금요일 오전 10시) △AI 사진 테라피 명상(조명웅 강사, 목요일 오후 2시) △요가 명상(김한순 강사, 수요일 오후 7시) △웃음치유명상(정분남 강사, 목요일 오후 7시) △니까야 강독과 호흡명상(김근중 강사, 금요일 오후 7시) 등이 운영된다.

이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세대별 법회를 비롯해 원장 스님과의 차담, 평화 걷기명상(일요일 오후 2시) 등이 마련된다.

마가 스님은 아울러 동명불원의 창건주 고(故) 강석진 회장의 ‘충효(忠孝)’ 정신을 계승하고 도심 사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8대 실천 사업’도 공개했다.

먼저 종교의 문턱을 넘은 ‘문화치유명상학교’를 필두로, 사찰 내 숨겨진 자연 공간에 일곱 차크라를 활용한 1인용 ‘마음치유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온전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지역 대학생과 유학생에게 밥 한 끼를 전하며 고민을 듣는 ‘청년 밥심’과 홀몸 어르신들의 애환까지 위로하는 ‘상담 결합형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철야 정진 ‘자비도량참법기도’도 신설한다. 또 인근 평화공원에서는 매주 ‘평화 걷기 명상’이 진행되며, 특히 오는 9월 1일에는 자비명상을 수행하는 스님 30여 명과 함께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을 호소하는 평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 ‘효(孝) 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축으로 한 ‘리더스 명상 모임’도 결성한다.

마가 스님은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수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문화치유명상학교가 삭막한 도심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쉬어 갈 수 있는 온전한 치유의 공간이자, 점차 쇠퇴해가는 도심 사찰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서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 ‘오방오제위도’ 문화유산 된다


경상남도가 8월 5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 사진 제공=경상남도

18세기 불화 연구 핵심
희소성 · 예술성 인정받아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통도사 서축암의 불화들이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경상남도는 8월 5일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와 ‘양산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청의 유교 유산인 ‘열부 포산곽씨 정려 현판 일괄’도 문화유산자료로 함께 예고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각 불화가 지닌 불교 미술사적 가치와 희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는 영조 6년인 1730년 화승 채인 스님이 조성한 수작이다.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정병, 대나무, 청조 등과 함께 조화롭게 담아냈다. 당시 불화의 대가였던 의겸 스님의 화풍을 이으면서도 채인 스님만의 온화한 존상 묘사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인다. 특히 하단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와 주체, 봉안 장소가 명확히 남아 있어 18세기 전반 관음보살도 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예고된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는 숙종 38년인 1712년 화승 서총 스님이 그렸다. 사찰의 대표적 의식인 수륙재 중 오로단에 모셨던 의식용 불화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관장하는 다섯 방위의 제왕을 하나의 화폭에 모두 배치한 독특한 구도를 띠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예고한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8월 8일, 광주 나눔의집서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기억을 잇다: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가 8월 8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집 대표이사 세영 스님,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관열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의원·광주시의원, 고(故) 강일출 할머니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8월 14일을 기념해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꾸준히 알리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온 고 강일출 할머니의 증언과 외침을 기억하기 위한 흉상 제막식이 함께 진행됐다. 강 할머니는 2000년 도쿄여성국제전범법정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왔지만 끝내 사과받지 못한 채 지난 3월 28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세영 스님은 “할머니의 용기와 외침은 사회 곳곳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셨다”며 “나눔의집은 앞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고 정성껏 추모해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우리의 목표는 연대다. 국가가 당당히 나서지 못한다면 시민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며 “연대의 목소리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크게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연대의 뜻을 모았다. 경기 광주=이현희 기자

삼광사, ‘사계미식 사찰요리강좌’ 모집

9월 2일 개강, 부산시민 대상
11월 경에는 ‘시식회’도 예정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차별화된 사찰음식과 약선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 보급에 나선다.

삼광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계미식 사찰요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광사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강의는 사찰요리 장인 김은정 강사가 맡았다.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평일 수·목요일과 주말인 일요일에 교차 강의로 진행된다. 장소는 삼광사 템플스테이관 조리실이며, 질 높은 실습 교육을 위해 각 강좌별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원서 접수는 현장에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발우공양 △면 상차림 △약선음식 △전통병과 △시절 발효음식 △죽 상차림 등 총 6가지 테마로 나뉘어 각 2회씩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찹쌀귀리 연잎밥, 오미자 통들깨 들기름 비빔국수 등 각 테마의 대표 메뉴를 실습한다.

특히 11월 경에는 부산 시민들을 초청해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상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김해 불인사, 해피로드와
8월 7일 ‘미소명상’ 진행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는 8월 7일 경내 미소마당에서 ‘나에게로 떠나는 미소명상’을 진행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피로드가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주지 송산 스님의 지도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호흡과 감각, 마음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송산 스님은 “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정보와 그로 인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시작으로 차명상, 소리명상, 감사수용명상 등을 차례로 체험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BBS, 부산 동구에 ‘자비의 쌀’ 기탁

8월 12일, 동구청서 전달식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원허 스님)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BBS부산불교방송은 8월 12일 부산 동구청에서 자비의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과 강철호 동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전달된 자비의 쌀은 동구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원허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시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서울 전시 마친 지장보살 '제자리로'

선운사, 지장보살 환안재
영산전 보물지정서 전달도
"지장보살 원력, 도량 수호"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는 8월 6일 '지장보금 금동지장보살좌상 환안재'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8월 6일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환안재'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 전시를 원만히 마치고 본래 자리인 선운사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금동지장보살좌상의 환안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된 영산전의 역사적 가치를 사부대중과 공유했다. 행사에는 부주지 운천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은행나무 숲에서 대종 10타를 시작으로 진행된 환안재는 전북 무형문화유산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지장보살 이운행렬은 인로왕보살 번을 비롯한 각종 번을 앞세우고 극락교, 사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 앞에서 영축게와 3배를 올린 뒤 지장보궁에 도착했다. 이어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지장보궁에 봉안됐다.

부주지 운천 스님은 "지장보살님의 대자대비 원력이 항상 이 도량을 수호해 불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선운사의 가람이 영구히 창성하길 발원한다"며 "환안 봉안 불사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과 시주 공덕주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현생에는 길상과 안락을 얻어 국태민안과 중생 구제의 길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영산전 법당에서 보물 지정서 전달식이 봉행됐다. 이날 선운사는 영산전의 보물 지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군 김진 문화예술과 전문위원과 김숙희 학예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선운사는 "수백 년 세월 동안 영산전을 정성으로 수호해 오신 역대 조사 스님들과 사중 스님,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물 지정은 이 소중한 성보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의무가 부여됐음을 의미하는 만큼, 영산전의 원형을 보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영산전의 보물 지정으로 고창 선운사는 9점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한 불교문화유산의 보고가 됐다"며 "선운사가 간직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은 "지장보살님이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오시고 영산전이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날을 맞아 신도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선운사는 고창군종합복지관에 자비의 쌀 1500kg을 전달했으며 선운사 신도회는 고창군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담양 전승 불복장 의식, 무형유산 가치 조명

8월 8일, 용화사서 학술세미나
독자 작법 · 전승脈 학술 규명
"지역 무형유산 지정 기반 마련"


담양 용화사는 8월 8일 '전남 전통 불복장작법 및 점안의식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전통의례인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 가운데 전남 담양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독자적인 작법과 전승 계보를 규명하고 지역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수진 스님·용화사 주지)는 8월 8일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서 '전남 전통 불복장작법 및 점안의식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는 불복장작법과 구별되는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스님의 전승 계보와 독자적인 작법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무형유산 지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은 불상과 불화가 성보로 예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한국불교의 소중한 전통의례"라며 "담양은 1757년 추월산 용천사에서 〈조상경〉이 처음 간행된 이후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이 전승돼 온 불교문화의 요람"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중표 전남대 불교철학 명예교수가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을 주제로 불복장작법의 사상적 의미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붓다 열반 이후 불탑이 주요 숭배 대상이 됐으며, 성수·윤보·불족·불좌 등을 통해 붓다와 가르침을 상징하다 이후 불상이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불교 불복장 법식화와 그 특징-율사 수진의 작법을 중심으로'를 통해 호남지역 불복장작법의 전승 계보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연담 유일 선사에서 화담 법린, 금해 관영, 묵담 성우를 거쳐 도월 수진 스님으로 이어지는 전승 법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진 스님의 법식이 역사적 전승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의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도월 수진의 불복장 법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통"이라고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김종용 동국대 불교무형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등 대종사 인재불사 원력 잇다

8월 9일, 군위 제2석굴암서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혜조당 법등 대종사가 평생 일궈온 인재불사의 원력이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위 제2석굴암(주지 홍관 스님)은 8월 9일 비로전에서 혜조당 법등 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 다례재 및 연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등장학회 장학금은 승가부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원이 전달됐다. 승가부에서는 원경·탄경·선고·형조·지안·선림·범종 스님 등 7명이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일반 대학생으로는 단국대 소예준, 서울과학기술대 조영웅, 부경대 박준호 학생이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효령분교와 부계중학교 학생 5명에게 각각 50만원이 전달됐다. 능인고 학생 17명에게도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연등장학회는 법등 대종사의 인재불사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법등 대종사는 팔공산 석굴암을 일구는 한편 후학 양성과 교육불사를 위해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그 뜻을 이은 연등장학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7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금은 5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학생들은 물론 스님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불교와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도대표이자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은 "큰스님께서 남기신 뜻을 잘 받들어 매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해 사회와 국가에 더 큰 뜻으로 보답하고,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추모 다례재에서는 법등 대종사가 평생 실천해 온 수행과 포교, 인재불사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연꽃, 봉선사를 물들이다

제24회 행복바라미 연꽃축제
8월 8일 연꽃음악회 진행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음악과 연꽃이 어우러진 연꽃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히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 제24회 연꽃축제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다.

봉선사는 8월 8일 경내 연지 상설무대에서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라미 연꽃축제' 개막 기념 '연꽃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진흙이 되겠나이다'를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음악과 연꽃이 어우러진 쉼을 전하고 청정·자비·화합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 행사에서는 연지 주변에서 신행·복지 홍보부스와 청년창업·지역경제 관련 나눔부스 16개가 운영됐다.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 등으로 지친 우리 사회에 잠시 멈춰 쉬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연꽃과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보광사 주지 선우 스님은 식전 공연과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에 전법활동지원금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과 인묵 스님은 광동고·의정부광동고·광동중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음악회 무대에서는 광동고 칠정례단의 우리말 칠정례와 연꽃미소합창단·수미산합창단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정서주·김주이·김금미·길대호·이하윤, JH콰이어, 코리아 유쓰 브레이커즈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와 합창, 비보이 공연, 원낭만기타, 색소폰 연주로 꾸민 행복바라미 버스킹 공연 등을 선보였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별빛·여름밤·모기장이 만났다

화엄사 모기장음악회 성료



지리산의 별빛과 바람을 벗 삼아 모기장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화엄사만의 특별한 여름 문화축제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8일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2026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음악회에는 가족과 연인, 학생,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영상 인사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공연은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메인 MC를 맡았으며 리사, 김신의, 백주연, 최지이 등이 무대에 올랐다. 김주연 음악감독이 이끈 100분간의 공연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출연진 개별 무대와 듀엣·합동 무대, 디즈니 스페셜, 피날레 합창 등 뮤지컬 갈라 형식으로 펼쳐졌다.

특히 올해 음악회는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형 입장료'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화엄사는 참가자들이 낸 1만원의 입장료를 모아 행복나눔기금 500만원을 조성해 한국농아인협회 구례군지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례군지회에 각각 250만원씩 전달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김경숙 씨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낸 돈이 뜻깊은 곳에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보람 있었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곡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8월 7~9일, 어린이 30명 참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마련했다.

마곡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 마곡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7일 열린 입재식에서 마곡사 교무국장 용담 스님은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바른 마음과 행동을 하나씩 배워보길 바란다"며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내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들은 조를 편성하고 경내와 박물관을 둘러본 뒤 타종과 저녁예불, 108배 염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김영택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동부총괄팀 포교사의 해설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인연이 깃든 삭발바위와 마곡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보며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배웠다.

이밖에도 피자 만들기와 물놀이, 싱잉볼 체험,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단법인 붓다, 아이스크림 3000개 전달

8월 10일 전주교도소에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는 8월 10일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아이스크림 3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수용자들이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북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무더위를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량사, '문화유산과 기후인문학' 특강

8월 11일,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11일 경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천년의 향기, 문화유산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를 주제로 '역사문화유산과 기후인문학'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강연에는 서정선 더페스티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연에 앞서 정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올곧게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문화유산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서 대표는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무량사 오층석탑을 비롯해 외부에 노출된 석조문화유산의 보존 문제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불교 품은 名山, '명승' 된다

〈명산〉

국가유산청, 연속 지정예고
무위사 등 자리한 월출산
인문지리 · 민속적 가치 높아
강화 정족산, 전등사 중심
불교 · 사고 등 역사성 높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된 월출산의 마애불(사진 왼쪽)과 강화 정족산 전등사 전경.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고찰들을 품어낸 명산들이 잇달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7·10일 각각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월출산 일원'과 다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 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

'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현 영암군) 소재의 '월내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수록돼 있다. 월출산 천황봉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나라의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산악신앙과 국가 의례의 전통이 이어진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 내 위치한 사찰 중 하나인 무위사는 선종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생생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남측 완만한 산세와 평야를 향한 개방적 입지, 낮고 절제된 극락보전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사찰인 도갑사는 통일신라 때 도선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도선 국사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계곡을 따라 수림·암반·문화유산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이 돋보이며, 이러한 경관은 고지도, 시문, '백운동도' 등 고려·조선시대의 옛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월출산은 오랜 시간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명산이자, 뛰어난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중요한 유산이다.

지질·생태적 가치도 뛰어나다. 월출산은 평야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서 선캄브리아기부터 백악기까지 다양한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돔형 암봉, 성곽형 암릉 등 화강암 풍화 지형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등 특이 식생이 분포해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다.

국가유산청은 "구정봉에 위치한 아홉 개의 우물 등 지형과 관련된 여러 신앙·설화가 전해 내려와 인문지리·민속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면서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을 통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명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악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유산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고려시대 가궐(假闕,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궁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한 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고려 이색을 비롯한 많은 문인의 유람 기록과 고문헌을 통해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산봉우리와 자연지형을 활용해 조성된 포곡형의 산성인 삼랑성과 자연 사면을 따라 배치된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인문환경이 하나의 경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통적인 산지가람의 입지와 자연지형에 순응한 산성과 사찰의 배치는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랑성과 전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람, 지역 주민의 생활을 연결하던 통로로 활용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더한다"고 전했다.

불교미술로 만나는 '무상·연기·자비'

불미전 8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서 개최
작가 21명 33작품 선봬



조계종은 8월 12일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연기·자비를 불교미술로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8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 시작을 알렸다.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無相)·연기(緣起)·자비(慈悲)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예술로 풀어낸다. 전시에는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초대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미디어아트 등 33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총무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획전은 불교의 지혜를 작가 각자의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 사이의 인연과 공존의 가치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면서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획전이 불교미술의 깊은 정신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가 인연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시는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진행된다. '무상'에는 강신자, 신상철, 신호윤, 안경진, 이혜원, 장줄리앙 푸스, 채승연, 최경락 작가가 '연기'에는 김경미, 김민, 서용, 양선희, 이배경 작가가 '자비'에는 송천 스님, 곽홍찬, 오원배, 원천수, 유현정, 이진경, 최학, 현승조 작가가 참여해 불교미술의 정신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과 출구의 '등대', 승려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가 '돌의 선율'이라는 작품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인 '무상'의 의미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장줄리앙 푸스는 "작품 '돌의 선율'은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제작했다"며 "오랜 세월을 견뎌온 돌조차도 공간의 조건에 따라 매 순간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고 작품의 의미를 전했다.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8월 26일까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을 공모한다.

공모 자격은 2025년 9월 3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발표된 콘텐츠 가운데 불교적 관점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제작 방식 등을 반영해 기존 '뉴미디어' 부문의 명칭을 '디지털 콘텐츠' 부문으로 변경했다. 기존 특별상을 '불교문화' 부문으로 변경해 변화를 꾀했다.

시상 부문은 △방송(TV·라디오) △언론보도 △디지털콘텐츠(인터넷TV,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 △불교문화 △언론인이다.

심사를 통해 올해의 불교언론문화상 대상(1개 작품), 언론인상(1인), 최우수상(각 부문), 우수상(각 부문), 불교문화상(2개)을 선정한다. 상금은 대상에 1000만원, 언론인상에 300만원, 최우수상에 각 300만원, 우수상에 각 200만원, 불교문화상에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는 8월 27일까지 방문과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02-2011-1681

박지운 기자

불교음악 관련 공모 잇달아

불교음악상 · 신작찬불가 공모

조계종이 불교음악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잇달아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성원 스님)와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8월 31일까지 '제8회 불교음악상'을 공모한다.

불교음악상은 추천 공모를 통한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후보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 및 각급 문화·포교·신도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헌정 음악회와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제12회 신작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출품된 작품들은 대중성, 작품성 등을 심사해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발표되며, 당선작에는 1편당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완성된 신작 찬불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시상식 및 신작 발표 연주회에서 초연된다.

신중일 기자



어두운 시대, '기도'로 넘어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종교 활동 조명 기획전
지선 스님 승복 등 전시
끈끈했던 종교 연대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례'다. 이 같은 기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을까.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 종교인들은 사찰과 성당, 교회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다. 인권을 지키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렸으며, 서로 다른 신앙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이어 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기획전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개최한다.


지선 스님 승복.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종교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펼친 실천의 역사를 조명한다. 서로 다른 신앙을 지녔지만 '인간의 존엄과 정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기록물과 유물, 영상 등을 통해 살펴본다.

전시는 종교인들의 실천이 남긴 네 가지 '울림'을 따라 구성된다. 시대의 침묵을 깨고, 인권을 지키며, 진실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네 개의 주제로 풀어낸다.

1장 '기도의 시작: 침묵을 깨운 울림'에서는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심도직물 사건,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 창간, 민중신학의 등장 등을 통해 종교계 사회참여가 시작된 과정을 살펴본다.

2장 '기도의 실천: 인권을 지킨 울림'에서는 유신 독재에 맞선 종교계의 인권운동을 소개한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문과 주교 반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목요기도회의 활동, 구속자가족협의회 관련 유물 등을 선보인다.

3장 '기도의 증거: 진실을 알린 울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 폭로 등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을 지켜낸 종교계의 활동을 조명한다. 특히 민중불교연합이 발간한 〈민중불교〉 창간호를 만날 수 있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1985년 5월 4일, 군부독재와 사회적 모순에 맞서기 위해 출범한 불교계 사회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인 평등과 해탈, 중생구제의 정신을 현대 사회 문제에 적용해 민주화,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4장 '기도의 응답: 연대를 이루는 울림'은 전시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1987년 명동성당 농성 현장을 재현하며 종교를 넘어선 연대가 민주주의로 이어진 순간을 보여준다. 해당 파트에서는 불교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인 지선 스님(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승복과 〈유마경〉, 108염주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던 종교인들의 실천을 돌아보는 자리"라며 "오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자리 찾은 도난 성보유산

보경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

24년 만에 환지본처한 도난 문화유산인 보경사 영산회상도와 지상보살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포항 보경사(주지 탄원 스님)는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도난 문화유산의 환수와 원봉안처 복귀를 기념하는 특별전 '보경사 영산회상도·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을 연다.

포항 보경사 팔상전에 봉안됐던 '영산회상도'와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도'는 조선 후기인 1778년에 조성된 불화로, 오랜 세월 신앙의 대상이자 사찰의 역사와 함께해 온 귀중한 성보이다. 그러나 1999년 도난 사건으로 사찰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긴 시간 동안 환수의 노력이 이어졌다.

두 불화의 환지본처 과정에는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으로서 성보 환수 업무를 이끌었던 주지 탄원 스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탄원 스님은 성보유산의 도난과 훼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난 성보의 소재 확인과 환수를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자료 조사, 환수 절차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침내 두 불화는 다시 보경사로 돌아오는 결실을 맺었다.


8월 3일 보경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는 내빈들.

이번 환지본처는 단순한 문화유산 반환을 넘어 성보가 본래 봉안됐던 신앙 공간으로 돌아와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경사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환지본처는 단순히 문화재를 되찾는 것을 넘어, 성보가 본래의 신앙 공간으로 돌아와 다시 그 역할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하는 일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차 전시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㊷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영생을 꿈꾸지 마라

生 也 一 片 浮 雲 起

49재를 올리는 절에서는 영가를 향해 장엄한 염불 게송이 울려 퍼진다. "태어남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이다.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듯, 나고 죽고 오고 감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맑고 고요하게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가 입적하며 남긴 게송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영생을 향한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 삶은 왜 주어졌으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묻는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 물음에 주목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세계 사이의 간극, 그곳에서 생겨나는 감각을 그는 '부조리'라고 불렀다.

카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주어진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한다.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찾는 것이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을 오르는 것, 바로 그 반항 의지 속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얻는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불교는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다른 길을 제시한다. 카뮈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했다면, 불교는 삶과 죽음 자체를 붙들고 싸우기보다 '본래 생사란 없다'는 통찰을 통해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태어남과 죽음은 고정된 것도, 독립된 실체도 아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 잠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생과 사 또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라질 구름에 영원성을 부여하려는 일과 다르지 않다. 잠시 피어올랐다가 흩어지는 생을 붙잡으려는 욕망이다. 영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사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시지프가 굴러 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며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이라면, 깨달은 이는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하늘을 보는 자유인이다. 구름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하늘은 구름의 생성과 소멸을 담담히 바라본다. 삶과 죽음도 그러하다. 삶과 죽음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의 문이 열린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제16회 반야학술대상에 오용석 교수

11월 1일 시상식 및 강연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오용석 학술연구교수〈사진〉가 '제16회 반야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불교학 발전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오용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간화선을 비롯한 명상과 마음공부 분야를 연구해왔다. 특히 간화선을 중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온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오 교수는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2025), 〈마음공부 열 걸음〉(2022), 〈명상, 깨어있는 만큼의 세계〉(2020), 〈선명상과 마음공부〉(2019) 등 20여 권의 저·역서를 펴내며 불교 사상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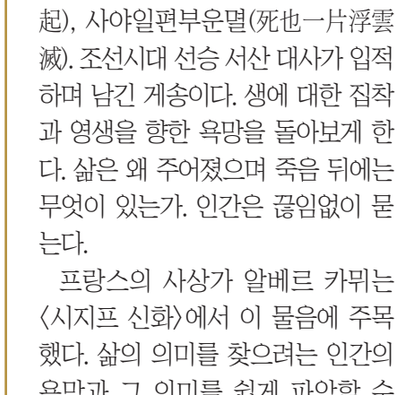
아울러 '진각혜심의 간화선관 고찰'(2026), '화두가 의심되는가, 화두를 의심하는 자가 의심되는가'(2023) 등 4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간한 〈서장: 간화선의 교과서〉(2024) 번역에 참여했으며, 2026년 출간 예정인 〈선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제16회 반야학술대상 시상식 및 수상 기념 강연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화상담시 전문지도

신기어린 소리! 성우같은 소리! 가창력 향상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제11회 남한산성 수륙무차대법회 I 산사음악회

의승군 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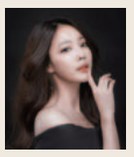
불기 2570(2026) 09.05 (토) 08:50 ~ 19:00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산사음악회 출연진


트로트가수 송민준


가수 로지


째즈보컬 김혜미


사회자 오계윤


통기타가수 박희진


트로트가수 염수연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2~8/1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상윳따니까야I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2	생활 속의 반야심경	김현준	효림
3	초발심자경문 강설	원인	민족사
4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정념	민족사
5	AWAKENING(깨달음 내 눈 뜨기)	VEN.POM-NYUN SUNIM	정토
6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불광출판사
7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페마 초드론	한문화
8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	최명숙	해조음
9	사성제와 팔정도	김현준	효림
10	시다림요집	불찬범음의례교육원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좋은 죽음에 관하여	몽테뉴	아르테(ARTE)북이십일
2	한글 원각경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3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4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6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7	원측의 소에 의한 해심밀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8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10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선암사와 갯벌이 들려주는 생명의 기록



산사와 갯벌
열매하나 편집부 지음
열매하나
2만2000원

세계자연 · 문화유산 품은 순천
역사와 자연의 본래면목 담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됐다. 2021년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충남 서산, 전남 고흥·무안·여수의 갯벌이 추가되면서 세계유산의 지도를 넓혔다. 이 가운데 순천은 한 지역에 세계자연유산(갯벌)과 세계문화유산(선암사)을 함께 품은 드문 사례다.

〈산사와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인 순천 갯벌을 함께 조망한 책이다. 선암사의 고즈넉함과 순천만 낙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8년 전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저자들은 1년여 동안 두 곳의 다채로운 모습을 취재해 기록했다. 지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은 '관광지'가 아닌 '살아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풍경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저자들의 고백은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태고종 총림으로서 오랜 세월 수행과 교육을 맡아온 선암사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담아낸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한 수계식, 스님과 주민이 함께하는 야생차 공동 울력, 템플스테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행공동체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한다.

또한 일반에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선암사의 성보와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선명한 사진으로 담아보는 맛을 더했다.

순천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지구의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장소다. 여기에 흑두루미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전봇대를 철거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염전을 다시 갯벌로 복원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해져 순천 갯벌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가 될 수 있었다.



〈산사와 갯벌〉은 순천이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함께 조망한다. 사진은 순천 선암사 전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에는 지역 생태문화 활동가와 기록가, 사진가들의 목소리도 담겼다. 오랫동안 자연과 역사를 지켜온 이들의 시선을 통해 독자는 갯벌의 본래면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내셔널지오그래픽 탐험가 김영래 작가의 스캐노그래피(Scanography, 스캐너를 활용한 촬영 방식) 작품은 염생식물의 생애를 한 화면에 담아내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한다.

출판사는 8월 23일까지 순천 '나무들의 밤'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출간 기념전 '산사와 갯벌'을 개최한다. 061-755-0204

여행 끝에서 만난 삶의 풍경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1만5000원

사진 · 시에 담은 여행 · 수행 · 삶
장애 넘어 걷는 길서 만난 희망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시인이 여행시화집 〈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를 펴냈다. 사진과 시를 함께 엮어 여행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인연을 담아낸 작품집으로 길 위에서 발견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조용한 시선으로 풀어낸 기록이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광뿐 아니라 오래된 사찰과 골목,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 인연들이 시인의 언어로 되살아난다. 사진을 먼저 바라보고 시를 읽으면 한 장면에 담긴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고 시를 읽은 뒤 다시 사진을 마주하면 그날의 빛과 바람, 숨결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진과 시가 서로의 여백을 메우며 독자에게 또 다른 여행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저자의 삶이 오롯이 스며 있다. 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최 시인은 이동의 불편과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자에게 여행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배려가 함께한 도전이었다. 그는 장애를 삶의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선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걸었기에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던 순간들을 시로 빚어낼 수 있었다.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성찰은 작품 곳곳에 잔잔한 울림을 더한다. 길 위에서 발견한 희망과 감사의 기록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용기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의 삶과 여행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전한다.

임은호 기자

'덕질' 끝에 만난 '최애' 부처님



최애는 부처님
비구니연습생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비구니연습생' 유튜브로
2030세대에 불교 가까이

대중문화를 넘나들며 유튜브로 불교를 전해온 '비구니연습생' 계소영 작가가 신간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다. 계 작가는 8월 12일 서울 연화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즐기던 평범한 청춘이 부처님에게 호기심을 느끼며 시작한 '엉뚱발랄'한 불교 '덕질' 에세이다.

저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진심이던 '덕후'였으나 불화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삶을 오래 들여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달라졌다. 그는 불교미술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던 시기, AI가 예술가의 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자,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후 불교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며 불교미술을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번 신간은 2년간의 유튜브 원고를 수정·보완한 결실이다.

책은 '최애'가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았다. 절에서 무엇을 빌어야 할지, 업은 내 운명인지 등 일상 속 궁금증을 수다 떨듯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대중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귀멸의 칼날'에서 생로병사의 비극을 읽고, '나루토'에서는 윤회의 고통을 꺼내 놓는 식이다. '원피스'에서는 해적 모험담을 넘어 신화적 해방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풀어내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에서는 무상의 묘리를 찾는다. 작가는 "2030세대 '힙불교' 타깃 층에 맞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필명인 '비구니연습생'은 대학 시절 블로그 명칭에서 비롯됐다. 출가 계획은 없지만,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하는 지금은 이 필명이 온전한 '본캐'가 됐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교가 가볍게 소비되지만, 학부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기까지 불교미술을 전공한 그에게 불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책 앞부분에는 불교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가짐과 내면의 성장을 담고, 뒷부분에는 '애니 덕질 입문'과 '비구니연습생의 과몰입' 등 최근의 관심사를 배치했다.

계 작가는 현재 서울 연화사 내 MJ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녹화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불화를 계속 그려 나가는 한편, 한국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불교 경전을 듣고 익히며 불교미술을 즐기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비구니연습생' 계소영 작가가 8월 12일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 후 서울 연화사 내 MJ스튜디오에서 〈최애는 부처님〉을 손에 들어보이고 있다.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선명상으로 마음의 중심 잡다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스님 지음
담마북스
1만8000원



나를 찾아가는 길
덕안 스님 지음
선명상연구소
1만2000원

현대인 위한 선명상 수행
고요히 내면 돌아보게 해
지친 일상서 평안 되찾아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최근 선명상을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평온을 찾도록 돕는 도서 2종이 나란히 출간돼 주목된다. 선명상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불교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통적인 선(禪) 수행을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명상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종책 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은 한국 전통 간화선의 깊은 통찰과 현대적 치유의 감성을 담은 선명상 시집 〈무영수(無影樹) 영원의 나무〉를 펴냈다. 스님은 참선과 명상의 길을 꾸준히 안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념 속에 머물던 참선의 세계를 일상으로 이끈다.

책은 4부에 걸쳐 수행자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시 120여 편을 엮었다. 분별을 넘어선 원융한 마음을 노래한 '신심명의 노래'부터 '이뭣고' 화두로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화두의 노래', 깨달음이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음을 일깨우는 '증도가의 노래', 일상의 순간들을 수행으로 삼는 '명상의 노래'가 이어진다. 이 시들은 분별을 떠나 '이뭣고'란 질문으로 본래 면목을 마주하는 간화선의 법을 제시하고, 깨달음이 본래 갖춰져 있음을 밝힌다.

스님은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보라"거나 "뾰족한 마음들이 서로를 찌를 때/ 둥근 달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보라"고 권한다. 또 "간절한 의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고요한 빛으로 차오르네"라며 수행 정진을 독려한다. 특히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장하다 나 자신아/ 비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시선을 줄게/ 참선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금강 스님은 "지식으로 쌓은 성벽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시공을 초월해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서 이 시집이 독자들에게 주머니 속에 숨겨진 보배 구슬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열린 조계종 주최 '2026 국제선명상대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전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이 펴낸 〈나를 찾아가는 길〉은 치유를 위한 선명상 안내서다. 〈금강경〉과 선명상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의 원리와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책은 현대 사회에서 선명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특히 우선 멈춤·무시로·쉘 패스·그림자·놓음·삼수야가라·라잇 나우 등 일곱 가지 선명상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복잡한 불교 교리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덕안 스님은 책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더 많은 소유나 성공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선명상은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 마음에서 찾는 수행이며, 이를 통해 마음을 이해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괴로움의 원리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명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만나게 된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존 명상 앞에 '선'을 붙여 '선명상'으로 명명한 배경을 전한다.

이어 선명상이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생활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즉 선명상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이자, 불교의 깊은 수행 전통과 간화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해탈과 성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덕안 스님은 선명상이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선명상을 처음 만나는 분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시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3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지난해 8월~올해 7월 초판 도서
12~22일까지 접수, 10월 발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제23회 불교출판문화상 및 올해의 불서 10' 후보작을 공모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가 주관하는 불교출판문화상은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다. 경전 해설서, 교리 입문서, 수행 관련서, 학술서, 역사서, 문화 예술서, 어린이·청소년 도서, 문학 등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서가 포함된다. 타 기관에서 선정·지원받은 도서도 신청 가능하며, 개정판·증보판 등 사실상 초판이 아닌 도서와 공공기관 출판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올해의 불서 10종 및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 우수상 2종, 붓다북학술상 1종, 보덕전법상 1종, 한길번역상 1종, 입선 4종을 최종 선정한다. 상금은 대상에 1000만원, 우수상에 각 400만원, 붓다북학술상·보덕전법상·한길번역상은 각 200만원, 입선에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입선은 출판사가, 다른 상은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 수상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불서를 애독해 온 독자나 단체 2곳을 선정해 독자상(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를 원하는 출판사나 저자는 A4용지에 500자 이내의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 1부와 함께 신청 도서 종별 5부(4권 이상 전집은 2질)를 제출해야 한다. 서지 정보는 이메일(unjusa88@hanmail.net)로, 도서 실물은 겉면에 '불교출판문화상 신청도서'를 표기해 우편 또는 택배(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7-1, 3층 운주사)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말 교계 언론에 발표 및 개별 통지하며 시상식은 11월 하순 개최될 예정이다. 010-5592-9702

배희정 기자

회당 대종사 가르침 현대인에 안내



진각성존 보리수
혜정 정사 지음
올리브그린
11만5000원

진각종 종조 성도 80년 기념
밀교 사상·수행 체계 집대성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사진 제공=진각종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을 지낸 혜정 정사가 올해 진각종의 종조(宗祖)인 회당(悔堂) 대종사(1902~1963)의 성도(成道) 80년을 기념해 수행서 〈진각성존 보리수〉를 펴냈다.

이 책은 혜정 정사의 오랜 수행과 연구, 성지 순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각종의 밀교 사상과 수행 체계를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저술이다. 밀교의 심오한 진리와 실천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5권 1세트로 구성했다.

진각종은 법신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염송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 밀교 종단이다. 혜정 정사는 이번 저술에서 진각종의 소의경전이자, 회당 대종사의 어록을 모아 놓은 〈실행론〉을 〈금강정경〉과 〈대일경〉 등 종단의 소의경전과 함께 살피며 교학 체계를 다진다.

책은 〈실행론〉의 본뜻을 중심으로 37존 상호공양과 당체법문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법신불과 화신불을 두 그루의 성수로 비유하고, 육자진언의 묘리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보여준 당체법문을 〈실행론〉으로 귀결시켰다.

특히 책에 실린 〈실행론〉과 종조법어, 7편의 논술 등의 내용을 〈금강정경〉, 37존의 출생의(出生義), 〈진실섭경〉의 가르침과 서로 대응시켜 정리했다. 여기에 진각종사와 관련 논문을 추가하고, 교화 현장에서 발췌한 당체법문을 '방편이란 무엇인가', '진실설법과 방편설법의 약설', '육자관념도는 하나의 수행 만다라이다' 등을 주제로 한 예시 설법으로 수록했다.

〈실행론〉을 '법불교'와 '응화방편문'으로 나누어 출판한 초기 〈실행론〉과 꽃이경인 해인경의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하고, 도움 자료 해설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책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중생을 위해 싹을 틔우고 줄기, 잎, 꽃, 열매를 맺는 32상으로 상호공양하며, 이로써 화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실천하는 방편 교화의 의미를 담아 회향문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회향의 결실이 바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임을 역설한다.

또 석가모니불이 설한 8만장경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경이라면, 진각성존이 설한 〈실행론〉은 비로자나불이 중생을 위해 나타내 보이신 당체법문을 설파한 논(論)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법신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오늘날 수행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 폭넓은 교학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에서 법을 전하는 스승들이 대중교화의 지평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해가기를 바라는 애종심(愛宗心)의 발로인 셈이다.

혜정 정사는 "〈실행론〉의 본뜻과 법신 비로자나불의 자연법이 자연법체로 보여주는 당체법을 전하기 위해, 1존을 1권으로 37권 성수를 나누어 회통불사를 시작했고, 각권마다 37존 상호공양 장면이 반복된다"면서 "1존 1권만 독송해도 37존이 지닌 공득을 증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독자 모두 삼고(三苦)에서 해탈하기를 서원했다.

혜정 정사는 1975년 진각종에 입문해 스승의 길에 들어 유가·탑주·밀각·행원·지륜심인당 등에서 교화했다. 교육원장을 거쳐 유지재단 대표이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회당학회장, 제28대 통리원장을 역임했으며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남인도 북인도를 가다〉, 〈대승장엄보왕경〉, 〈대일경 주심품 이야기〉,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 등이 있다.

배희정 기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온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지금 이 세계戒

⑦ 불이(不二)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름휴가가 시작된 7월 말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타는 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정말 '타들어 간다'는 말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날씨였다. 뉴스만 보더라도 더위에 관한 소식이 첫머리를 장식했고, 지역별 최고 기온과 날씨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기록됐다는 뉴스는 더위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무더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일지도 모르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 같은 8월의 무더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2026년 여름의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럽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먼 유럽의 일' 정도로 여겼지만,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보다 뜨거운 기온이 우리나라를 뒤덮었고, 거기에 지독한 습도까지 더해져 길에 나서는 것조차 무섭고 걱정해야 하는 시기를 보냈다.

어쩌다 이런 날씨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편의에 맞춰 살아왔다.

우리는 지구의 무수한 자원이 마치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그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간이 살지 않는 공간에 과감히 버리고 있다.

또한 다른 생명들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어떠한 배려와 자비도 없이 가두어 기르고, 노동을 시키거나 잡아먹어 왔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공간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산을 깎아 땅을 만들고, 다니기 편하게 산을 뚫기도 하고, 바다를 덮어 땅을 만들고, 자연이 만든 물줄기를 돌려 인간만을 위해 쓰고 있다.

불과 몇 가지의 예시를 거론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지구에 대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없이 내어주고 자비롭게 바라봐주던 지구가 참다못해 이런 날씨로 우리 인간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다. 경고를 준다는 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경고를 무시한 채 이대로 살아가며 더 큰 재앙을 만나 그 탓을 다른 것에만 계속 돌릴 것인지, 아니면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 인간도 지구 속의 한 중생임을 깨닫고 다른 생명과 함께 화합해 지구 속에서 잘 살아갈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결정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

보살계의 첫 번째 계목(戒目)은 '불살생(不殺生)'이다. 율장의 경우 승가에 출가한 비구·비구니를 중심으로 하기에 '불음'이 첫 번째인 반면, 보살계(특히 대승불교)의 경우 중생과 함께하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 첫 번째로 '불살생'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살계에서의 불살생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지지계(止持戒)적 내용을 넘어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작지계(作持戒)적 실천행을 담고 있다.

> **7월 말부터 40도 웃도는 더위 이어져**
> **이상기온 현상, 전 세계적인 지구 문제**
>
> **인간 중심의 생명·자원 착취가 원인**
> **지구 경고 앞서 불교 가르침 되새겨야**
>
>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 **불이의 하나로서 지구 위해 실천해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우리와 함께 이 법계(法界)를 살아가고 있다. 전통불교에서는 육도윤회에 들어 있는 존재만을 중생(衆生, Sattva)으로 여겼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이라 하여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산천초목실개성불(山川草木悉皆成佛: 산과 강, 풀과 나무 모든 것이 다 성불할 수 있다)'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됐고, 이제 지구에 있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설하는 가르침이 됐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모든 생명 있는 존재', '불살생'의 대상은 이제 지구 속의 모든 유정과 무정까지 확대됐다. 사찰에서 새벽예불마다 독송하는 '이산혜원선사 발원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유정(有情)들도 무정(無情)들도 일체종지(一切種智) 이루어지이다"라고 마친다.

이처럼 불교는 항상 우리에게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불교 역시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편의와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외면해 왔으며,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지구를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실천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처럼 나 한 명의 편의는 다시 전체로 퍼질 것이고, 그 전체는 다시 무서운 과보가 되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크나큰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한 명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행(行)한다면, 그 행의 선업(善業)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전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질 것이다. 지금은 지구라는 크나큰 전체가 심각하게 다쳐 아파하고 있다. 그 상처는 다름 아닌 작은 한 부분인 인간이 준 것이다.

그렇기에 일체(一切)를 이제 일(一)이 치유해 주고, 그 안의 일(一)인 우리가 일체(一切) 속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사찰의 불상 옆에 있는 발원패에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다. '국태민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이 안락하기를 발원하는 것이고, 국태민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순풍조'가 필요하다. '우순풍조'는 제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우순풍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태민안만 바라다 보니 이런 날씨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매년 여름에 올해와 같은 40도의 불타는 더위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날씨가 찾아온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바른 날씨로 되돌려야 한다.

올해도 어떻게든 간신히 이 여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여름 뒤에 예측할 수 없는 추위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치료)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매년 그때그때에 맞춰 간신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이제 우리의 행동[身]과 동참[口]과 마음[意]이 필요하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지만, 중생은 결과만을 두려워한다)'는 가르침과 같이, 언제까지 결과만을 탓하고 남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의 삶으로 그 잘못의 원인을 바르게 인정하고, 원인에서부터 바르게 고쳐 그것을 토대로 바른 이어짐이 일어나 지구 속의 우리가 연기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실천해야 한다.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또한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불이법문(不二法門)'과 같이 지구와 중생과 우리는 불이(不二)의 하나[一]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 그 지구 속의 우리도 불타고 있다. "불이야"를 외치며 내 몸을 챙기기 전에 지구의 모든 존재가 '불이(不二)'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자.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90호 | 19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방2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대지 : 약 2만 5천평
- 법당 5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종각 10평(목조), 요사체 60평 2동, 원두막 2동, 저장고 6평, 용궁 30평 분수대 있음.
- 특징 : 납골당 허가 (5천구) 토목공사 완료, 수목장 부지 5천평, 15년 장뇌산삼 밭 1000평 이상.
- 동물 농장 – 꿩농장, 기러기, 칠면조, 닭
- 과수 농장 – 대추나무 약 200평, 밤나무농장, 자두나무 농장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 가액 : 오십오억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합니다)

010-6538-722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세종시
- 토 지 : 511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 액 : 4억

010-7112-0446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면적 : 약1,200평(대지, 임야 등)
- 대웅전, 요사채 약 80평
- 가액 : 8억원(토지 공시지가 이하)
- 사찰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암자터 안내

- 대지 : 608㎡, 주위 텃밭 사용 해발 600고지, 조용한 자연환경
- 전기사용, 차량진입, 청정계곡물
- 토목 공사 및 축대 조성 완료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 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1억 2천만원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3500만원

010-5316-5669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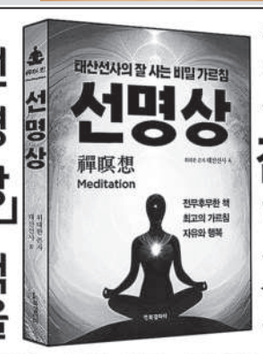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꼭 선명상 책을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우주광명 누진통

- 지금은 우주불교시대
- 지금은 천존 천신의 시대
- 새로운 불교 수행법

단 10분에서 1시간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져 무념 무상이되고 해탈이 되는것을 그 즉시 느끼고 깨달음이 이루어 집니다.

일광사 일광선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17~39

010-3586-6091

미래 철거 디자인

- 법당 철거
- 사찰 정리
- 유품 정리
- 가정집 정리

부산 : 이주현

010-5507-708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 · 바라 ·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종교를 바라보는 사전의 눈높이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⑫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1) 절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우리말샘〉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로 풀이하는 반면,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으로 설명하고 있다. 절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승려의 거주와 활동 위주에 치우쳐 있어 재가 신도의 공동체적 종교 활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사전은 조용하지만 힘이 세다

사전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조용히 적어 두기만 한다. 하지만 그 한 줄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어떻게 대상을 설명할지, 어떤 예문을 대표로 보여줄지를 정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세상에서 차지할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에서 편찬하고 관리하는 국어사전은 개인 출판사나 대학·종단의 연구소에서 펴낸 사전과는 그 공신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다르다. 국가 편찬 사전에서 제시하는 뜻과 예문은 일반 이용자의 어휘 이해뿐 아니라 언론과 출판, 교육과 공공기관의 언어로 다시 흘러간다. 사전은 언어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 같아도, 역으로 사전이 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중의 인식과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언어 현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우리말샘〉에서 '절'과 '교회'를 차례로 찾아보았다.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풀이돼 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묘한 차이가 보인다. 절에는 승려만 있고, 교회에는 신자가 있다. 절은 '집'이고, 교회는 '공동체'이자 '장소'다. 같은 종교 공간인데 한쪽은 특정 종교인만 머무는 공간으로 좁아지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로 넓어진다.

왜 절은 '집'인가

과거 〈표준국어대사전〉은 절을 "중이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는 집"이라고 풀이했다. 지금은 '중'이 '승려'로 바뀌었다. 분명 나아졌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서 말을 한번 뒤집어 보자. 만약 국어사전이 교회를 "목사가 십자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고 풀이한다면 어떨까. 아마 국립국어원에는 당장 뜻풀이를 고쳐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교회와 성당 같은 종교 시설은 목사나 신부 한 사람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종교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은 다를까. 절에도 스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배우며 수행하고 봉사한다. 그런데 사전의 정의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다. 남는 것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승려와 그 '집'이다.

물론 '집'이라는 말 자체가 낮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어에서 '집'이 주로 어떤 대상과 어울려 쓰이느냐에 있다.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경우에 따라 한 집안이나 가족을 뜻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고깃집·꽃집·빵집'처럼 물건을 팔거나 장사하는 곳에도 자연스럽게 붙으며, 종교와 민속의 영역으로 가면 '점집·무당집'처럼 무속이나 민간 신앙의 공간을 가리킬 때 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절을 굳이 '집'이라고 풀어야 할까. 절은 단순히 스님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예불하고 의례를 행하며 신앙과 수행이 이어지는 종교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집'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절이 지닌 성스럽고 공적인 성격은 뒤로 물러난다. 동시에 '점집', '무당집'과 같은 표현이 익숙한 한국어 화자에게 '절'은 이들과 은연중 같은 언어적 범주로 묶여 버릴 위험이 크다. '집'이라는 한마디가 사소해 보여도, 어떤 말로 부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특정 종교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진다.

사전 속 교회엔 신자 있는데 절엔 승려만
종교인 공간과 함께인 공동체 차이 보여
절은 대중의 예불·신앙·수행 종교 공간
다른 나라 사전, 절을 '집'으로 설명 안 해
예문에도 뜻풀이 부족, 두 종교 풍경 달라

당신들도 '절집'이라 하지 않느냐

사실 불교계 안에서도 '절집 살림', '절집 어른'처럼 '집'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때 '절집'은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간을 정겹게 일컫는 내부자의 말에 가깝다. 마치 야구나 축구에서 선수와 팬들이 홈구장을 '안방'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홈구장을 '안방'이라 부른다고 해서 국어사전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안방'이라고 풀이하지는 않는다. '안방'은 친밀감과 소속감을 담아 붙인 이름이지, 그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정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친근하게 '절집'이라 부르는 것과 국가에서 편찬한 사전이 '절'을 '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일본과 중국, 영어권의 대표 사전을 들여다보면 절을 굳이 '집'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대개 승려가 머물며 수행하는 '건물', 불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아예 불교의 '사찰'이라고 풀이한다. 적어도 그곳이 종교 공간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해 두는 셈이다.

아주 드물게 영어권 사전에서 불교 시설을 'house'로 설명한 예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어의 'house'는 왕가나 의회처럼 공동체와 제도·기관까지 가리킬 수 있는, 의미가 더 넓은 단어다. 그러니 영어 사전에서 'house'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국어 사전에서 개인이 먹고 자는 '집'으로 풀이한 것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절'을 '집'으로 규정한 사전의 정의는 승려의 거주와 활동을 중심에 놓고, 재가 신도와 예불·법회·수행·교육처럼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종교 활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결국 문제는 '집'이라는 낱말이 불경스럽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종교의 대표 공간을 누구의 공간으로 보고,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느냐에 있다.

초파일과 불안할 때만 가는 곳?

뜻풀이의 부족함은 예문에서도 이어진다. '절'의 첫 예문은 "초파일 날 절에 가다"이다. 반면 교회에는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가 나온다. 절은 특별한 날에 찾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매주 반복해서 찾는 일상의 신앙 공간이 된다. '날'과 '마다'가 만드는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

두 번째 예문으로 가면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교회에는 "새 교회를 세워서 변두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가 제시돼 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에 이어,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회적 실천의 공간으로 교회가 그려지는 셈이다.

그런데 절의 다음 예문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절을 찾는다"이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만 절에 갈까.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가고, 가족의 평안을 빌러도 가며, 법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간다. 그런데 수많은 마음 가운데 사전이 고른 것은 하필 '불안'이다. 또 다른 예문에서는 "절에선 다섯 시면 아침 공양"이 등장한다. 예불도, 법회도, 수행도, 신도들의 종교 활동도 아닌 '밥 먹는 시간'이 왜 하필이면 '절'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으로 선택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의 눈높이는 공평한가

이렇게 모아 놓고 보면 사전 속 두 종교의 풍경은 너무 다르다. 교회는 매주 신자들이 찾고, 공동체를 이루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현재의 종교 공간으로 그려진다. 반면 절은 특정한 날에 찾아가고, 불안할 때만 기대며, 아침 일찍부터 식사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사실 각각의 문장만 떼어 놓으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무엇을 골라서 모아 놓았느냐이다. 사전의 편향은 거짓을 쓰는 데서가 아니라, 수많은 진실 가운데 어떤 진실만 골라 '대표'로 세우는 데서 생긴다.

사전의 한 문장은 짧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떤 종교는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현재의 종교로 그려지고, 다른 종교는 성직자의 '집'에 머무는 사적이고 낡은 풍경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집'이라는 한 단어뿐일까. 이제 고쳐야 할 것은 작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사전의 눈높이일지도 모른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대형 보살벽화에 담은 화엄경

사찰벽화 명작순례

⑮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문수관음보현 보살벽화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1735년에 중건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향좌측 서측면의 내부 세 칸 벽에 세 분의 보살을 그렸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세 분이다. 향우측부터 문수-관세음-보현보살 순으로 배치했다. 관세음보살을 문수·보현보살 중간에 그렸다. 직지사 대웅전 내부엔 150호가 넘는 대형 벽화가 여섯 점이나 있다. 한 법당 내부에 대형벽화가 여섯 점이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드물고도 경이로운 일이다. 여섯 점 대형벽화는 서쪽 벽면에 보살 벽화 3점, 북쪽 벽면에 비천 벽화 2점, 후불벽 뒷면에 수월관음벽화 1점 해서 모두 6점이다. 직지사 대웅전의 대형벽화 여섯 점을 방위와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사진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직지사 대웅전 내부 벽화 장엄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몇 있다. 그중 하나는 한 법당에 수월관음도 대형벽화를 두 점이나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서쪽 벽면 중앙 칸과 후불벽 뒷면에 수월관음도를 그려뒀다. 서쪽 벽면의 수월관음도는 세로 148㎝, 가로 267㎝에 이르고,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는 세로 566㎝, 가로 742㎝에 이르는 초대형벽화다.

대형 수월관음벽화는 통상 후불벽 뒷면에 조성한다.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는 직지사 대웅전을 비롯해서 강진 무위사, 부안 내소사, 공주 마곡사, 청도 운문사 등 11곳에 현존한다. 특별히 서쪽 벽면에 대형 수월관음도를 조성한 사례는 두 곳에 불과하다. 직지사 대웅전과 보성 대원사 극락전뿐이다.

대원사 극락전의 서측면에 그린 수월관음도는 동측면의 달마대사도에 대응해 그린 산물로 이해한다.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는 각각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며 한편에선 달마대사를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보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 같은 관세음보살-달마대사 좌우 배치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직지사 대웅전 서쪽 벽면의 수월관음도는 유례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와 함께 나란히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보현보살도와 문수보살도 중간에 수월관음도를 배치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관세음보살도는 불상 뒤 후불벽 뒷면에 조성하는 것일까? 또 문수, 보현, 관음 세 보살의 배치에서 왜 가운데 자리에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것일까?

그 배치 원형은 석굴암에 있다. 석굴암에서 십일면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불 바로 뒷면에 자리한다. 문수-관음-보현보살의 배치 순서는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와 동일하다.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 역시 향우측에서 향좌측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문수-십일면관음-보현보살을 차례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순례 여정에서 첫 번째로 문수보살을 복성의 사라숲에서 만나 설법을 듣고는 발보리심을 낸 후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남쪽으로 순례를 시작한다. 덕운, 해운 비구들을 차례로 만나고 순례의 중간인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 보타낙가산의 관세음보살이었다. 순례의 마지막엔 53번째로 보현보살을 만나 보현행원의 설법을 듣고 입법(入法), 곧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선재동자의 순례 과정도 문수-관세음-보현보살로 압축된다. 그것은 발보리심(문수보살)—보살행(관세음보살)—보현행원(보현보살)으로 이어지는 〈화엄경〉의 구조와 일치한다. 석굴암의 세 보살 배치는 물론 직지사 대웅전의 세 보살 배치도 〈화엄경〉의 구성에 따른 것이다.

문수—관음—보현보살의 배치 순서는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와 동일 벽화 배치 교의 〈화엄경〉 '입법계품' 용의 보주 공양은 관음께 귀의의 뜻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서측벽의 문수관음보현보살벽화. 위에서부터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벽화 수	벽화 내용		
서측면 3칸	3점	코끼리 탄 보현보살도	수월관음도	익룡 탄 문수보살도
북측면 좌우 1칸씩	2점	공양비천도(보주, 용뿔, 천도)	주악비천도(대금)	
후불벽 뒷면 3칸	1점	용왕	수월관음	선재동자

직지사 대웅전 서쪽 벽면의 대형벽화는 문수·관음·보현보살벽화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머리 양쪽을 쌍상투로 묶은 동자형으로 표현했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동자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보살행이 걸림이 없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문수보현보살도에서 통상 문수보살은 청색 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은 상아 여섯을 가진 흰색 코끼리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탄 모습으로 표현한다. 직지사 벽화에선 보현보살은 육아백상을 타고 있지만 문수보살은 날개 달린 황룡을 타고 있어 이색적이다. 문수보살은 '문수달천진'의 경지로 신통한 까닭에 익룡마저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익룡은 날개를 활짝 펴서 시공의 양변이나 경계에 걸림이 없다. 무애자재의 힘은 무상, 무아, 공의 지혜에서 나온다. 허공을 날아도 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유시유종은 성문 연각의 경계이고 무시무종은 보살행의 성취다. 문수보살벽화 속에 상구보리의 대자유가 있다.

특이한 것은 문수보살의 몸에는 광배가 없는데 보현보살은 두광은 물론 신광까지 갖춘 점이다. 중앙의 관음보살도 두광은 있지만 신광은 없다. 왜 보현보살만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끊임없는 보현행원이 성불의 길로 통하기 때문이다. 보현보살 뒤로 노을처럼 퍼지는 붉은 기운을 보라. 절대적인 기운으로 충만하다. 코끼리는 고개를 돌려 걸어온 억겁의 수행의 길을 돌아보고 있다.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오직 하나의 길 일불승(一佛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두 보살 사이에 백의관음보살을 배치했다. 백의관음벽화의 공간 무대는 물결이 일렁이는 푸른 바다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묘사하고 있는 보타낙가산의 암벽 장면과는 딴판이다. 아예 바다 한가운데다. 더구나 관세음보살과 선재동자는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용의 몸통 위에 서 있다. 관세음보살은 용의 머리 위에 마련한 연화좌 위에 서 계시고 선재동자는 정병을 가슴에 안고 용의 몸통 위에 맨발로 서 있다. 용도 바다 물결처럼 용틀임해댄다. 사위가 온통 요동친다. 그런데도 고요하고 적막하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는 관조만 하고 말이 없다.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의 경계다. 백의관음은 말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선재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일체유심조이니 오직 마음이 지을 뿐이다. 언필칭 저 파도는 마음이 짓는 것이리라.

직지사 대웅전 벽화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장면은 세 칸의 대형 후불벽 뒷면에 그린 수월관음도다. 뇌록 안료의 붓질로 암청색 바탕칠을 한 후 먹으로 흑묘, 흑채해서 흑탱불화와 유사하다. 등장인물은 관세음보살, 용왕, 선재동자 셋이다. 세 칸의 벽면 칸마다 한 분씩 그렸다. 향좌측부터 용왕-관세음보살-선재동자를 그려 넣어 유례없는 대형의 먹빛 수월관음도를 완성했다. 무대 공간은 바닷가 보타낙가산이다. 하늘거리며 흘러내리는 사라 두건 차림의 수월관음은 바위 위에 고요히 앉아 계신다. 원유관을 쓴 용왕은 거센 파도 속에 요동치는 용의 몸통 위에 서서 관세음보살께 공양물이 담긴 쟁반을 올리고 있다.

공양물은 놀랍게도 생명력이 생생한 붉은 보주와 용의 뿔 '용각(龍角)'이다. 용이 자신의 상징인 붉은 보주와 용각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용왕의 모든 권능을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즉 관음보살의 수호신을 자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왕의 공양 장면은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능력을 암암리에 증명해 주는 극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 용왕의 뒤로는 바위틈에서 자란 청죽이 푸르다. 향우측의 선재동자는 바다에 피어난 푸른 연잎 위에 서 있다. 주름치마처럼 늘어트린 주홍빛의 하의가 인상적이다. 두 손엔 초록 잎이 무성한 버들가지가 꽂힌 커다란 검은 정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버드나무 가지 끝엔 관음보살의 분신이라는 파랑새가 앉아 있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는 서로 말이 없어도 정병의 버드나무는 늘 푸른 여름이고, 바위 푸른 대나무는 온통 봄빛이다. 대나무와 버드나무의 늘 푸르름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의 감로다.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법의 길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보살행의 길이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내것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직지사 대웅전의 대형벽화는 신해행증의 보살행을 시각적으로 일깨운다. 문수보살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신(信)'과 이해의 '해(解)'를 일깨우고, 관세음보살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행'을 가르치며, 보현보살은 보현행원으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길을 제시한다. 그 벽화는 58만7261자의 80권 〈화엄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직지사 대웅전 대형벽화 속에 〈화엄경〉이 펼쳐져 있다.



노재학 작가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동참금 : 369만원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출발일 : 10월21일 출발~25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1일 출발~3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엔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원숭이가 잃어버린 것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⑦ 욕구와 탐욕 : '욕심 많은 원숭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예컨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며,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정 사회나 문화 속에서 공유하는 욕구도 있다. 평소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추석이 다가오면 송편을 먹고 싶거나 동짓날엔 팥죽을 먹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적 욕구다. 미국인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요리를 먹고 싶은 것과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도 충족되지 않으면 삶에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의 시선에서 동지에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어르신 세대에겐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기만 소외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든, 식당에서든 누군가와 팥죽을 먹게 되면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를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마을 부녀회에서 팥죽 한 그릇 들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면 고마워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욕구라는 것도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러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신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어서 파라다이스에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무량수전(無量壽殿)이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 한량없는 목숨을 의미한다. 이웃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생(永生)이 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무한을 바라는 종교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의미 있는 삶에 작지 않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욕구가 지나치면 탐욕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욕을 세 가지 독[三毒] 가운데 제일 앞에 놓고 있다. 인간의 괴로움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하므로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린 욕심 많은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다. 원제는 '갈라야뭇티 자타카(Kaḷāyamuṭṭhi Jātaka)'인데, 우리말로 하면 콩(Kalāya) 한 움큼(mutthi)에 관한 전생담이 된다.

코살라국의 임금이 변방에서 일어난 작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 마음먹고 조언을 듣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왔다. 이때 부처님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주 오랜 옛날 왕궁 부근의 울창한 숲속에 욕심 많은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신하들은 왕이 타는 말에게 먹일 콩 한 자루를 수레에 싣고 가고 있었다. 마침 나무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원숭이는 고소한 콩 냄새를 맡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사람들 몰래 콩 한 움큼을 손에 움켜쥐고 입안에도 한가득 넣은 채 얼른 달아났다.

나무 위로 올라온 원숭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져온 콩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데 콩을 먹다가 실수로 콩 한 알을 땅에 떨어트리고 말았다. 비록 한 알에 불과했지만, 원숭이는 아깝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손에도 입안에도 콩이 가득한데 말이다.

그는 떨어지는 콩을 잡으려고 손을 벌렸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물론 입안에 들어 있던 콩마저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땅으로 내려와 찾아보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한 알의 콩을 탐내다가 전부를 잃어버린 셈이다. 원숭이 탄식만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괴로움은 지나친 욕구에서 시작돼
콩 한 알 탐내다 전부 놓친 원숭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 잃은 셈
움켜쥔 것 놓아야 또 잡을 수 있어
탐욕 내려놓고 소탐대실 우 피해야

"아이고! 겨우 콩 한 알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렸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전쟁을 포기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작은 것을 탐하다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은 것 버리기

욕심 많은 원숭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래전 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저쪽으로 가면 등산로가 나올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등산로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옷은 나뭇가지에 여기저기 찢겼으며,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그때 절실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당시 왜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동화 속 원숭이가 땅으로 떨어트린 콩을 아깝다고 여긴 것과 같았다. 그 결과 일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꼬이고 고생만 더하게 됐다. 어찌 보면 원숭이나 필자 모두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잃은 셈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 용어에 매몰 비용 오류라는 말이 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자의 경우 잘못된 길로 들어온 상황이며, 동화 속 원숭이는 한 알의 콩을 떨어트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이미 지불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나버린 과거가 미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을 때 곧바로 손절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는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팔면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넣는 일명 '물타기'를 하게 된다. 그 결과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라 할 것이다. 만약 어느 야구팬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마지막 7차전 티켓을 어렵게 구했는데, 경기 당일 심한 독감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사람은 조금 아쉽더라도 예매를 취소하고 TV로 경기를 관람한다. 그런데 티켓을 구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무리하게 경기를 보러 간다면, 그는 이미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신이 매수한 가격과 공들인 시간, 노력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한다. '얼마에 샀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비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에 얽매여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머리로는 끄덕일 수 있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냥꾼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잠깐 소개한다. 그들은 목이 좁고 바닥이 넓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넣어둔다. 그러면 원숭이는 항아리 안으로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쥔다. 하지만 항아리의 목이 좁아서 원숭이의 손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때 움켜쥔 과일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사냥꾼이 다가와 원숭이를 잡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곤 하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이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동화 속 원숭이와 같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 영원히 잡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반대로 손을 펴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다. 계속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펴고 잡을 기회를 엿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언젠가 한 친구가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얼마나 손해인지 물었더니, 그 친구 말과 달리 실제로는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훨씬 높았는데, 주가가 내려가서 손해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 역시 땅에 떨어진 콩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익인데도 손해라는 생각, 탐욕은 그렇게 우리 주변을 끝없이 맴돌고 있었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대행 스님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모든걸 자기 탓으로 돌려라

불자로서 마음을 잘 쓰려면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잘 쓰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불자로서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도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 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겪어 보니깐 내가 그걸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거는 밖으로 보고 들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에 생각하고 가는 것도 그놈에서 나오는 거요, 안에서 나오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즉 들이고 내는 게 다 그놈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참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이 겉으로 보고 사량으로 돌리는 게 어두워요.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 돌지 않는 거죠. 이게 돌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하나하나 이건 말로 이루장창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분명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이 엉뚱나가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으로 돼 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나가게 생각이 안 나느냔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것도, 그것이 바로 두 놈이 아니고 그 한 놈도 없다고 만날 말을 하는데도 아이, 그걸 두 놈으로 갈라놓고선 이건 사량이고 이거는 내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사방천이 밝아서, 참 스스로서 그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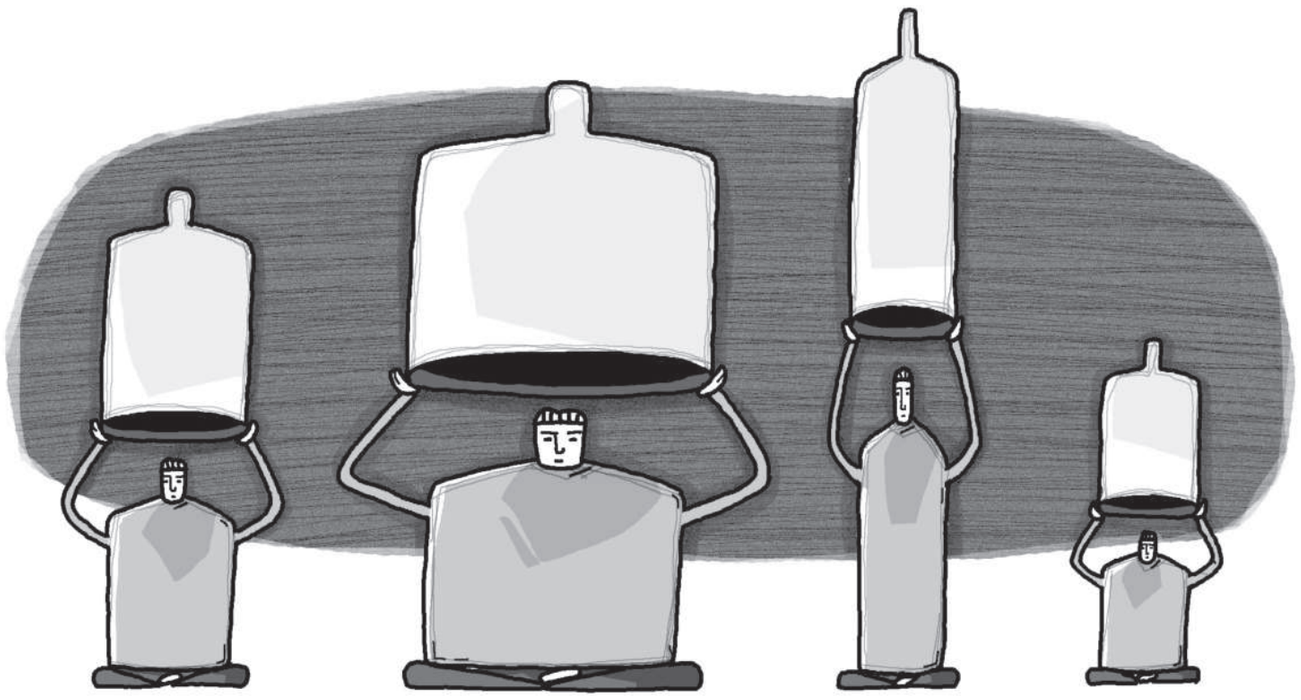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는 항상 끄달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남편이 일을 갔는데, 석 달 기한을 하고 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데 "스님, 거길 가니깐요, 애 아빠가 그냥 먹질 못하고 일은 고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갔던가?" 그러니까 "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그걸 불문에 부치고 말입니다. 그래, 가는데 먹지 못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일 고되다는 거 번연히 알면서,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벌어다가 그래도 예금통장에 조금이라도 넣고 사는 사람이, 그래 맨손으로 그냥 가요?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아니,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고런 일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를 "이 통이 똥그랗게 된 통은 똥그란 뚜껑이라야 맞고, 네모가 난 통은 네모 뚜껑이 맞는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라면 이건 세세생생에, 즉 말하자면 지옥이니라." 이상이 맞지 않는 부부라면은 이건 지옥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는 더 말할 수 없거니와 돌부처도 돌아앉게 된다 이 소립니다. 이 업 짓는 것도 자기네들이 맞지 않게 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험을 못 하고,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에도 들어가 보고 구덩이에도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아는데, 그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 보지 않는 반면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 보는 데서 무지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 가면서 연구를 거듭거듭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뜻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 모르고 어떠한 게 나타나도 그거 또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될 것을, 이걸 둘로 보니깐 온갖 집안이 형편없이 그 자기의 마음의 분신이 이것저것 생겨 가지고는 온통 집안이 우환이 끓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태워 버리고 모든 것을, 우환을, 가난 또는 병고, 인연, 유전, 업보 이런 것을 모두 떼 버리려면 나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붙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도 없고 너 자체도 없고 중생 부처도 없다. 이것은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진의를 몰라서 이거는 무지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그냥 끄달리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야, 이건 불쌍하다', 이거는 뭐가 어떻고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거는, 잘되고 못되는 건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생각에. 잘되고 못되는 게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다 놔 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한생각으로 굴려서, '아하! 너는 아주 불쌍하니까 그냥 내내 너는 사람으로서 틀림없게 살고 또 성공해라. 그리고 이 뜻을 잊지 마라.'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 무주상 보시가 부처님한테 있고 보살한텐 있는 건데, 야! 이놈의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런다면 무주상 보시는 벌써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벌써 이게 가로 걸려요. 이 물질이 벌써 생각에서 가로 걸려서 그렇게 길이 밝혀지질 않게 되죠.

이 물질이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자식이 지금 금방 죽을까 봐 겁나고 공부 못할까 봐 겁나고 그냥 뭐, 야단이지마는, 자식도 나도 다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것도 그 자체 내에서, 다 오고 가는 데서 자기 꺼지는 불은 꺼지고 생기는 불은 생기는 거지 뭘 그럽니까. 자식들이 고만고만해서 이 자식들을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면 그 자식들을 길러 놓고 죽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자식들 다 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난 저 자식들 길러 놓고 죽는다고 하고 죽나요? 못 하죠, 죽는 길에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그러는데 야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내 자식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야만이 죽지 않고 오히려 밝아집니

☞ 24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 23면에서 계속

다. 아시겠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질문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정된 직장 없이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답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살던 그 모두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모두가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것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이니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한탄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공,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꾸자꾸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마음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일체가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거기서 입력이 돼서 나왔다고 믿고 다시 거기다 일임해서 맡겨 놓고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의 마음을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또는 부드러운 말로써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맡겨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입력이 되니까 자꾸 되돌아 나와서 지금 현실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러한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지기다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아는 것, 마음을 아는 거. 일체 만물,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 연결. 팩스는 내 몸뚱이가 아닌 마음 자체에 모습 없는 모습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그런 능력. 일체 모든 소리를 전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통신기.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바로 천체망원경.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오븐 속에 물건을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을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기구가 그대로 그 재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면 '주인공, 당신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또는 가난하면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또는 모든 가정의 화목도 '당신만이 화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고 그 일체를 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체를 다 거기다 놓는다면 자기 한마음으로써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발견한다면, 전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모든 일체의 만물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발견한다면, 거기서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또는 의학 문학, 모든 것이 일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거기서 병난 거니깐 네가 낫게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낫게 하라!'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병난 거니까 거기서 고쳐야죠. 병원에서 30%를 고쳐 준다 한다면 여러분이 70%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삽니다. 왜냐. 병이 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의사는 거기 있으니까. 몸속에 수만 가지의 생명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아프면 콩팥 공장에서 낫게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뇌에서 병난 거는 뇌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다 낫게 하고 또는 어떠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너는 알잖아.' 하고서,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는 싸움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항상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 병이 나도 걱정 없고, 또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무한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질문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라서 내 가정을 꾸려서 다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사는데 남편도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다 내 탓이겠지요?

답변 우리 인간에게는 오신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숙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돼?' 이런 한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한테 맡겨 놓고 자기밖에는,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의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소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생활이 과학적이면서도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여러분 한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자기 집에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게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깐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애기 적이 납니까, 젊었을 때가 납니까, 늙었을 때가 납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건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을,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모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 밖에 해결 못 한다' 하고 맡겨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럭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은 슬그머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리고 '내가 왜 이럭하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지도 않나?"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저 차에라도 치여 죽지 않나?" 이런 소릴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는데, 요만한 거 꼬리표 하나 붙여 놓고 요만한 전등 하나 켜 놓고 그걸 인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될 일입니까? 한생각을 잘하면 그게 인등을 백 번 천 번 켠 거보다도 더 위력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냄으로써 그것은 마음의 인등입니다. 마음 냄으로써,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이건 자가발전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인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내 보배를 두고도 써먹지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니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 안에 소중한 보배가 있음을 믿고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극락과 지옥이 내 한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 하는 것도 없습니다.
> 그 도리를 알아야 사방천이 밝아서
> 참 스스로서 그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찰의 화려한 색채의 뜻은

질문 대부분 사찰에 가 보면 화려한 색채로 꾸며져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울긋불긋한 그런 색감에 약간은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된 뜻이 있겠지요?

답변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울긋불긋하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색신을 말해요. 우리 지금 세상 모두, 늙고 젊고 애기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을 전부 돌아가면서, 또 나무는 나무대로 꽃이 피고 또 물은 물대로 흐르고,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추수도 해 들이고, 이러는 거를 전체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울긋불긋이라고 할 수도 있죠, 뜻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한다면 마구니 소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구니라고 피하고 나쁘다고 피하고 좋다고 갖고 이런다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⑭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신념의 틀 내려놓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억척스러운 삶, 외로움과 한(恨)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여·72세)은 억척스러운 차림새였지만, "안녕하세요"라고 건네는 인사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어르신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버지와 파출부 일로 바쁜 데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온전히 집안 생계를 짊어지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어르신을 더욱 힘들고 삶의 희망을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무정한 배신이었습니다. 도박과 음주로 세월을 보내던 남편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질병을 옮겨와 어르신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급기야 동네 이웃과 바람을 피우다 현장이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 채 상처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고부갈등과 집안싸움

어르신이 상담센터를 찾아온 계기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이혼 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와의 불화로 1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는데,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오면서 아들이 재결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재결합을 결사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초기, 사돈댁과 소통하면서 어르신에게 고성을 지르고 험하게 했던 충격과 배신감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못 먹고 못 쓰면서도 아들 내외에게 선물도 보내고 정성을 다했으나, 명절날 겨우 잠시 머물다 가면서도 "시댁에 묶여 있었다"고 거짓 불평을 하고, 먹지도 못할 과일을 가져오는 등 무례하게 행동했던 며느리의 태도는 어르신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재결합할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남편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도 어르신을 향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아들 역시 화가 나면 집을 나가버리거나 연락을 회피하면서, 어르신의 집은 날마다 고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진심

상담 도중 흥분할 때마다 펜이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어르신의 내면에는 자신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당위적인 사고(비합리적 신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에게도 자기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 거친 말들은 며느리나 아들을 향한 미움이라기보다 자신이 평생 겪어온 고초와 자신의 가

남편의 배신과 고부 갈등 상처 남아
당위적 사고 이면엔 위로 갈망 마음
억울함과 슬픔 어루만져야 변화돼

치가 어긋난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들의 이혼이나 집안의 파탄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일만 하며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내 고생과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소망, 즉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어르신의 고단했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기에, 어르신은 돈과 집의 권위에 집착하고 유교적 질서를 내세우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지친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르신의 강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즉각 바로잡거나 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가족에게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를 상담실 안에서 먼저 충분히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상담자를 통해 그 마음속 억울함과 슬픔을 어루만져 줄 때, 어르신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마음 고단함 안아주기

어르신은 가족들이 사죄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 경전인 〈법구경(法句經)〉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상관하지 말라. 오직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만을 살필지니라." 어르신이 지켜온 당위적인 사고는 타인을 바꾸지 못할 때 결국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족들의 행동과 선택에 집착해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르신이 정작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평생을 위로받지 못한 채 눈물 흘려온 어르신 자신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미안해해야만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과 가정을 지켜온 어르신의 세월은 타인의 인정이나 자식의 굴복 없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남의 허물과 버릇을 바르게 고치겠다는 무거운 집착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차가운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느라 참 애썼다"며 나 자신에게 따뜻한 온기의 말을 건네는 순간, 억눌렸던 분노는 조용히 물러가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㊳ 비타민C 메가도스의 명과 암

공복 복용 피하고 서서히 양 늘려야

"약사님, 비타민C 어디 있어?"

"비타민C는 어느 분이 뭐 때문에 드시려고 하세요?"

"뭐, 그냥 이래저래 좋다고 하던데?"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200정, 300정 단위도 있고요."

"음, 300정 해도 한 달분이잖아?"

"네? 한 달분이요? 보통 10달은 드시는데…."

"응. 하루 세 번 세 알씩! 몰라? 약사 양반이 뭘 모르네. 3000mg, 세 알씩 하루 세 번 먹으면 감기에 안 걸려. 암도 낫는다고 하던데?"

"아, 메가도스 요법 말씀하시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하루 아홉 알은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서울대 교수님이 그렇게 먹으라던데."

"근데 처방받은 약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아니에요? 손님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을 목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비타민C는 하루 1000mg 정도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메가도스 요법은 하루 3000mg에서 많게는 1만mg 이상을 복용하기도 한다. 수용성인 비타민C는 일정량 이상 몸으로 흡수되고 나면 나머지는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과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 것이 비타민C 메가도스의 핵심이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는 방법에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로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한 뒤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되고, 회복이 빠르며 몸도 가벼워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 탄력 유지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므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만성 피로를 겪는 이들에게는 피로함을 덜어주고 일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해준다.

단점으로는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장 결석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비타민C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한, 영양 성분의 정상적인 흡수를 방해해 철분의 과도한 흡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용량 투여 시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불면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

활성산소 제거, 피로 회복·면역 유지 도움
신장 결석과 철분 과흡수 유발 가능 주의
역류성 식도염 시 위·목 통증 생길 수도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 속 쓰림,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비타민C의 성분인 아스코르브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위장관 점막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이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양의 산성 물질이 위벽에 닿으면서 속이 쓰리고, 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위궤양이 있는 환자의 경우 궤양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과 섞인 고농도의 비타민C가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데, 약한 식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줘 기침을 동반한 목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셋째, 소장에서 미처 다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간 비타민C가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다면, 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복용 방법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먼저 공복에 먹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식사 중이나 식사를 마친 직후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 복용해 강한 산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버퍼드 비타민C(Buffered Vitamin C)라고 불리는, 산도를 중성으로 조절한 제품을 복용하면 직접적인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비타민C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싼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급한 마음에 처음부터 고용량을 복용하기보다는 500~1000mg 단위로 시작해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서두르는 마음이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젊은 승려가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제가 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얻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럼 제가 잠도 줄이고, 남들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수행한다면요?" "그렇다면 20년이 걸릴 것이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낮으로 피나는 수행만 한다면요?" "그러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어째서 더 열심히 서두르는데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한쪽 눈을 목적지에만 고정해 두고 서두르면, 정작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똑바로 쳐다볼 눈은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II

자연과 하나 되는 걷기 명상의 완성

뛰어난 기능성과 수행의 미학이 결합된 차세대 어싱 수행화 모델입니다.

Mesh Earthing Meditation Shoes 2



어싱(Earthing) 자연과의 연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자연 친화적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메시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

걷기 명상 최적화 자연을 느끼며 걸을 때 더 큰 평온을 선사합니다.

쾌적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1. 뛰어난 통기성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고급 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행 중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설계로 맨발을 선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3. 자연 통풍 구조 신발 내부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땀 냄새없는 착용감을 지속시킵니다.

4. 세련된 디자인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6㎜ 와이드 핏(Wide Fit) 미들사이즈 한국인의 발에 맞춘 넓은 발볼 설계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미들은 '와이드'와 '어반'의 중간 발 볼 넓이입니다.)

3㎜ 제로드롭(Zero-drop)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원터치 스토퍼(One-touch Stopper)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어싱 레더 슈즈 와이드 리센스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클래치한 맛을 더한 와이드 리센스 모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베이지 블랙

수행의 길,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매일의 걷기와 수행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발걸음, 비바미가 함께합니다.

특별이벤트 어싱 양말 증정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어싱 효과를 돕는 전용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센터 및 구매처 상담 전화 1688-9099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시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주문/상세 정보 QR코드

자연을 밟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금 15. 하계종합사회복지관

환경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상상소'



ESG 환경 창의 프로젝트 '지구상상소'에 참여한 아이들이 비누 점토를 활용해 지구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

최근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늘며 방과 후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아동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7월부터 돌봄과 환경 교육을 결합한 ESG 환경 창의 프로젝트 '지구상상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구상상소는 2024년 운영한 창의적 재사용 실험실 '가지가지' 프로그램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 프로그램 일환이다.

지구상상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술 활동과 과학 실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높이고, 스마트폰을 대신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환경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환경의 가치를 주변에 알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경 교육과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미술 활동 '지구 아트', 과학과 놀이를 접목한 '지구 실험실', 환경 캠페인,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구상상 전시회: 그린나래'를 열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활동 결과물을 보호자와 지역 주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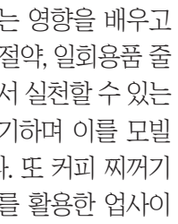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고 분리 배출과 자원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며 이를 모빌 작품으로 만들었다. 또 커피 찌꺼기로 비누와 폐종이를 활용한 업사이클 바인딩북을 제작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물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다.

아이들은 이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의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물 아끼기, 재활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환경 보호 방법을 스스로 제안했다.

복지관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습관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구상상소'를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구상상소'를 통해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이해하고, 분리배출과 자원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세진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⑦ 마음에도 여름휴가가 필요하다

그림책 명상으로 만난 마음공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이면 누구나 휴가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번 여름 한 달을 보내며 조금 다른 휴가를 생각하게 됐다. 몸이 머무는 장소를 바꾸는 것만큼,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림책 명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안내한다. 그림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한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물며 호흡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안내한다고 해서 명상 안내자의 마음까지 늘 평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더 자주 발견하게 됐다. 명상을 안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결과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한 달의 마음공부가 시작됐다.

그림책을 펼쳐 놓고 천천히 그림을 바라봤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표정과 여백, 페이지 사이의 침묵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이 때로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자리를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명상도 다르지 않았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고, 좋은 마음만 가져야 한다고 할수록 불편한 감정은 더 또렷해졌다. 그러나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마음과 조금씩 거리가 생겼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감정을 빨리 바꾸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한 장면 앞서 자기 마음 바라보게 안내
상대에 귀 기울이고 바라보는 여유 생겨
감정 붙들리지 않고 돌아오는 힘도 길러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선생님들에게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기보다 잠시 들어주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많이 애썼구나"라고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것, 상대의 말을 조금 더 오래 듣는 것, 불편한 감정을 곧바로 밀어내지 않는 것. 하루 중 잠시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어쩌면 마음공부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그림책 명상을 하면서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마음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도, 언제나 평온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슬플 때는 슬픔을, 화가 날 때는 분노를, 지쳤을 때는 지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오래 붙들려 있기보다 다시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림책은 그 과정에서 좋은 벗이 되어주었다. 짧은 문장과 한 장의 그림 앞에서는 설명보다 느낌이 먼저 찾아왔다. 같은 그림책을 보아도 마음에 닿는 장면은 사람마다 달랐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은 어느 순간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됐다.

이번 한 달의 여름은 휴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휴가였고, 타인의 기대와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자신의 마음을 만나는 것도 휴가였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명상 안내자들과 함께 누군가를 치유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㉘ 어떤 '음모론'



영원사 유리보전.

온갖 종류의 '음모론'이 횡행하는 세상이다.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솔깃해할 나이도 아니지만, 하마터면 음모론에 빠질—아니, 내가 퍼트릴—뻔했다. 뭐냐 하면, '몬드리안은 한국 사찰에서 자신의 구성주의 작품 세계의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는 생각 혹은 발견. 제법 그럴듯해서 찾아보니,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다 1944년 뉴욕에서 사망한 그가 한국에 와봤을 가능성은 제로. 그 시대의 한국은 숨어 있는 나라였다. 즉시 음모론을 (흔쾌히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미수에 그쳐서 정말 다행이다.

내 음모론의 전말은 이렇다. 영원사 유리보전 출입구 쪽 벽면을 보는 순간 '몬드리안'이 떠올랐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삼원색만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추상을 추구한 몬드리안의 구성주의 회화가 거기 있었다. 보편 원리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는 만날 수밖에 없다. 영원사 유리보전의 벽면 조형과 몬드리안의 회화는 서로 빚진 게 없다.

이천 영원사는 신라 때 창건된 고찰이지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1968년 비구니 선혜 스님이 중창했다. 유리보전은 1985년에 지은 건물이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기둥과 보, 꽃살문과 벽을 그리드 시스템으로 활용한 조형 감각이 참신하다. 절 마당의 조경도 매우 예쁜 절이다.

봄이면 사람들이 환호하며 모여드는 '이천 산수유마을'이 영원사 아랫마을이다.

손영자 작가



업(業)의 끌림 멈추고 진리의 길에 들다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요즘 우리 절 관음선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정진하는데, 그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의를 불태우는 70대 노보살 님이 가장 으뜸이다. 묵묵히 정진하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뜨거운 여름, 나태해지기 쉬운 대중들에게 모범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우리는 업(業)에 익숙하고 육근(六根)이 즐거운 일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쫓아다닌다. 반면에 마음 다스리는 공부나 수행, 기도처럼 중생의 업과 반대로 가는 일은 생소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불교 공부는 즐기기도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배의 노력이 드니 포기하기 쉽다.

'수행'의 복 중의 하나는 자신의 업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다. 멀리해야 할 '그릇된 것'과 가까이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이란 나의 업을 마주하는 일이며, 무거운 중생의 업장(業障)을 깨달아 깊이 참회하며 통곡하게 만들고, 청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과정이기도 하다. 수행하지 않는 이는 본능이 이끄는 쾌락과 편안함을 따라 덧없이 한 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업의 흐름을 거슬러 복덕을 닦는 이는 이생에서도 대중의 존경을 받고, 다음 생에는 더욱 빛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오래전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혜경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갓 돌이 지나 시련을 맞이하고 몸이 성치 않았던 그는 성철 스님을 찾아

관음선원 노보살의 정진, 대중의 모범 돼
'업 참회' 수행, 청정한 나 찾아가는 과정
철저한 수행 통해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가 매일 삼천 배를 올리며 절망을 극복했다. 이후 그는 히말라야 등반까지 해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말투와 사고방식, 육체까지 지배하는 오랜 숙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참맛이다. 사량분별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작업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변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 스님은 〈서장(書狀)〉에서 "설은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라(生處放教熟 熟處放教生)"고 하셨다. 익숙한 중생의 습기는 멀리하고, 생소한 수행은 자꾸 닦아 익숙하게 만들라는 말씀이다. 학인 시절 마음에 새긴 이 한 구절은 내게 큰 경책이자 등불이었다. '진리를 향한 공부가 내 업에 익숙하지 않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라고 자각하면, 업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 계속 정진하게 된다. 반대로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이 솔깃해질 때면, '아직도 중생의 업에 물들어 끌려다니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즉시 멈추게 되는 것이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최대 50세를 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복이 많아서 현생에서 자신의 업을 닦고 정진할 시간을 두 배나 더 얻은 셈이다. 그러니 '나이와 시절이 맞지 않다'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분별심, 그릇된 견해, 그리고 육근이 요구하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통찰하고 바꾸며 진리의 길로 당당히 들어서야 한다. 가장 힘들고 생소한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행 정진하는 소박한 대중들과 함께, 거룩한 진리의 길에 있음을 서로 격려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AI 담론과 연기론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필자는 아직 AI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AI에 관한 책이나 논문은 꽤 읽어 왔다. 마치 여행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이 여행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리라. AI에 대한 문자를 섭력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포감이 스며든 지도 모르겠다. AI가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물릴 정도로 풍미돼 왔다. 그러나 나의 공포는 AI가 지구 중생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있다. AI는 클라우드(구름) 속에 떠 있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엄청난 광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구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물질적 산업이다. 전자기기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채굴물의 99.8%가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한다. 내몽골 바오티우에는 1억8000톤 이상의 부산물로 죽음의 검은 호수가 형성됐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AI에 대한 논쟁의 태반은 기술적 전망과 인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논의의 공통된 전제는 인간과 기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연'은 빠져 있다. 근대 문명의 형성은 인간/자연, 주체/객체, 문명/야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

AI, 자연 착취 생태계 변형 위험에도
인간-자연 잇는 새로운 소통 길 열어
지구 살리는 지속가능한 관계 설계도

하는 도구가 되어 왔고, 오늘날 AI 산업 역시 이 논리를 집요하게 따르고 있다.

최근 '인간 대 AI'의 담론 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인간-AI-자연'의 삼각관계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 담론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AI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AI는 자연을 착취하는 도구가 될 위험을 넘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실천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AI는 자연의 복잡한 신호를 해석하고,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시공간적 생태 패턴을 감지하며,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지구적 맥락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AI는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 사례로 꽃가루받이 곤충들의 행동 패턴과 생태적 필요를 분석해 곤충 친화적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누에를 죽이지 않고도 아름다운 실크를 뽑아내기도 한다.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AI는 우리가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AI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관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연기론적 담론이다. 이러한 인간-AI-자연의 연기론적인 관계망에서 지구 중생을 살리는 자비 실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붓다의 지혜가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社 說

광복의 완성은 평화와 화합에 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다. 그렇기에 광복절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성찰하는 날이어야 한다.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각 종단과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렸다. 학술대회와 전시, 자료 발굴 등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항일운동사를 복원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불교가 역사 속에서 감당했던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했다.

불교계, 독립정신 되새기며 화합의 길 모색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평화·국민통합 노력

올해도 그 뜻은 이어지고 있다. 진관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백범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출가 수행했던 공주 마곡사도 선생의 삶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다. 이처럼 불교계가 광복절을 기리는 것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 평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평화재단이 실시한 '광복 81주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광복을 어느 정도 이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61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10명 중 7명(69.1%)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 81년 동안의 성취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역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는 광복이 국권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라를 되찾은 뒤에도 사회 구성원이 서로 반목·갈등한다면, 남과 북이 대립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었던 광복은 아직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논평을 통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경색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평화를 향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모두 광복의 정신을 오늘에 완성하는 과정이다.

불교계도 독립을 위해 온 삶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이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한마음출판사의 마음을 밝혀주는 도서

당신의 지혜를 밝힐 이번 여름 '세 권의 책'

"불안을 넘어 당당함으로" "내 안의 근본 마음을 만나다" "걸림 없이, 바람결처럼"



생활 속 참선수행 시리즈 (한영합본) 각 권 9,000원

인터넷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